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 제주도내 중학교 미술교육과정 현황 분석

- 추상미술을 중심으로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이 은 혜

2011 년 8 월

# 제주도내 중학교 미술교육과정 현황 분석

- 추상미술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손 일 삼

이 은 혜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1 년 8 월

이은혜의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1 년 8 월

An Analysis of the Present Art Curriculum  
of Middle Schools in Jeju  
- Focusing on Abstract Art -

Eun-Hye Lee

(Supervised by Professor Il-Sam Son)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2011. 8.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

Thesis director, Il-Sam Son, Prof. of Art Education

---

---

---

Date

Department of Art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국문초록>

## 제주도내 중학교 미술 교육과정 현황 분석

- 추상미술을 중심으로 -

이 은 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지도교수 손 일 삼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미술교과는 하나의 독립적인 교과에서 선택 교과로 바뀌어졌다. 이는 타 교과에 비해 미술교과의 의미와 중요성이 축소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개정된 교육과정 내용에 따르면 암기중심교육에서 탈피하여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주된 교육의 방향으로 설정 되어있으며 미술 교육의 목적 역시 우수한 미술가를 양성하는 데만 있지 않고, 학생들의 미적 감수성과 상상력을 통한 개성적 창조성을 발휘시켜 바람직한 인간성을 개발하고 육성하는데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현재 미술교육 현장에서는 개성적 창의력과 미적 감수성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보다 기능위주의 사실적 표현을 강조하는 수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추세이다. 균형을 잃어버린 교육방식으로 인해 학생들은 내적 감정 표현과 창의적 표현에 대해 어색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표현에 있어서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었다.

이에 연구자는 형식이나 사실적인 표현에 구속받지 않고 자유로운 점, 선, 면 등의 순수한 조형요소와 원리로 표현되어 작가의 내면세계를 표현하기에 용이하고, 새로운 조형미를 창출할 수 있는 창의력을 기르게 하는 추상미술이 현재 미술교과의 문제에 하나의 대안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다.

그리하여 추상미술 교육이 직접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7차 교육 과정 개편에 따라 간행된 2종의 교과서를 수집하여 구상미술의 내용과 비교 분석하였으며, 제주도내에 소재하는 중학교 8곳에서 남·여 중학생 2학년 395명을 대상으로 미술 선호영역, 추상미술 감상 경험, 추상미술의 이해와 수업·관심영역, 추상미술과 감정 표현 등의 문항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여 현장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교과서 분석과 설문조사의 결과 분석을 통하여 나타난 추상미술교육의 문제점으로는 구상미술 단원의 편중, 추상미술 소단원의 구성방법, 추상미술 감상 기회의 부재, 추상미술 교육의 부재, 추상미술 수업목표의 미달성, 표면적인 개념파악 중심의 추상미술 학습, 추상미술 작품제작의 저조한 비율, 내적 감정 표현의 무지 등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추상미술 단원의 비중 확장, 추상미술에 대한 하위주제 단원 구성, 활용중심의 교과서로 수정 보완, 추상미술과 현대미술의 통합적인 지도, 추상미술에 대한 교사의 충분한 이해와 철저한 수업 준비, 추상미술 수업 내용과 방법의 변화, 내적감정 표현의 지도, 실생활에 활용 가능한 것과 추상미술을 접목시켜 학습동기를 상승시키는 등의 방안이 요구된다고 보았다.

본 연구는 실제 이뤄지고 있는 추상미술 교육의 실태 조사를 통해 추상미술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추상미술 교육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

1) 본 논문은 2011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 목 차

국문초록 .....	i
I.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2
II. 추상미술의 이론적 고찰 .....	3
1. 추상미술의 개념 및 역사 .....	3
2. 추상미술교육의 필요성 .....	10
III. 중학교 미술 교육과정 분석 .....	13
1. 중학교 미술 교육과정 .....	13
2. 중학교 미술교과의 추상미술 분석 .....	15
IV. 제주도내 추상미술 교육의 실태 .....	28
1. 설문조사 절차와 방법 .....	28
2. 설문조사 결과 및 분석 .....	30
3. 추상미술교육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60
V. 결론 .....	65
참고문헌 .....	68
ABSTRACT .....	70
부록 .....	72

## 표 목 차

<표 1> 미술 교과 내용 체계 .....	14
<표 2> 구상미술 소단원의 시간배당 .....	19
<표 3> 추상미술 소단원의 시간배당 .....	21
<표 4> 구상미술 소단원의 학습내용 I .....	24
<표 5> 구상미술 소단원의 학습내용 II .....	25
<표 6> 추상미술 소단원의 학습내용 .....	26
<표 7> 설문지 문항 구성 .....	29
<표 8> 일주일간 할당되는 미술시간 .....	30
<표 9> 미술 수업시간정도에 대한 만족도 .....	31
<표 10> 미술 수업시간에 대한 선호도 .....	32
<표 11> 미술시간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 .....	33
<표 12> 미술에서 가장 선호하는 영역 .....	35
<표 13> 회화에서 선호하는 영역 .....	36
<표 14> 구상화 선호 이유 .....	37
<표 15> 추상화 선호 이유 .....	39
<표 16> 추상미술 감상기회 정도 .....	40
<표 17> 추상미술 감상 장소 .....	41
<표 18> 추상미술의 이해도 .....	43
<표 19> 추상미술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 .....	44
<표 20> 추상미술 이론수업 정도 .....	45
<표 21> 추상미술 작품제작 정도 .....	46
<표 22> 교과서 사용 정도 .....	48
<표 23> 추상미술 수업 시 배운 내용 .....	49
<표 24> 추상미술에서 이해가 어려운 부분 .....	50
<표 25> 추상미술에 대한 학습욕구 .....	51
<표 26> 추상미술에서 배우고 싶은 영역 .....	52



<표 27> 추상미술에서 감정표현 여부 .....	54
<표 28> 감정표현에 대한 느낌 .....	55
<표 29> 감정표현이 어려운 이유 .....	56
<표 30> 사실과 감정표현 중 중시하는 부분 .....	57
<표 31> 학생의 성별 .....	58
<표 32> 학교 소재 지역 .....	59

## 그림 목 차

<그림 1> 영역별 대단원의 수 .....	16
<그림 2> 표현영역의 영역별 소단원 수 .....	17
<그림 3> 표현영역의 구상미술 소단원과 추상미술 소단원 수 .....	18
<그림 4> 구상미술 소단원의 시간배당 합 .....	20
<그림 5> 추상미술 소단원의 시간배당 합 .....	22
<그림 6> 구상미술 소단원과 추상미술 소단원의 시간배당 비교 .....	23
<그림 7> 일주일간 할당되는 미술시간 .....	30
<그림 8> 미술 수업시간 정도에 대한 만족도 .....	31
<그림 9> 미술 수업시간에 대한 선호도 .....	33
<그림 10> 미술시간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 .....	34
<그림 11> 미술에서 가장 선호하는 영역 .....	36
<그림 12> 회화에서 선호하는 영역 .....	37
<그림 13> 구상화 선호 이유 .....	38
<그림 14> 추상화 선호 이유 .....	39
<그림 15> 추상미술 감상기회 정도 .....	41
<그림 16> 추상미술 감상 장소 .....	42
<그림 17> 추상미술의 이해도 .....	43
<그림 18> 추상미술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 .....	45

<그림 19> 추상미술 이론수업 정도 .....	46
<그림 20> 추상미술 작품제작 정도 .....	47
<그림 21> 교과서 사용 정도 .....	48
<그림 22> 추상미술 수업 시 배운 내용 .....	50
<그림 23> 추상미술에서 이해가 어려운 부분 .....	51
<그림 24> 추상미술에 대한 학습욕구 .....	52
<그림 25> 추상미술에서 배우고 싶은 영역 .....	53
<그림 26> 추상미술에서 감정표현 여부 .....	54
<그림 27> 감정표현에 대한 느낌 .....	55
<그림 28> 감정표현이 어려운 이유 .....	56
<그림 29> 사실과 감정표현 중 중시하는 부분 .....	57
<그림 30> 학생의 성별 .....	58
<그림 31> 학교 소재 지역 .....	59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0개의 국민공통 기본 교과군 중 하나의 과목으로 자리하고 있었던 미술과목은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의 국민공통 기본 교과군이 7개로 축소됨에 따라 예술이라는 범주 안에 선택교과로 자리하게 되었다. 하나의 독립적인 교과로 존재하고 있었던 미술교과가 선택과목 중 하나의 과목으로 바뀌어 버린 본 현상에 대한 의미는 학생들의 입시 부담을 덜어낸다는 것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타 교과에 비하여 미술교과의 의미와 중요성이 축소되어 가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2009년 개정된 교육과정 내용에 따르면 암기중심교육에서 탈피하여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주된 교육의 방향으로 설정 되어있다. 미술교과의 총괄목표역시 “미술의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미적 감수성, 창의적 표현 능력, 비평 능력을 기르고 미술 문화를 향수 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데 있다”<sup>2)</sup> 고 밝히고 있다. 덧붙여 “미술교육의 목적이 우수한 작품을 제작하는 미술가를 양성하는 데만 있지 않고, 학생들의 미적 감수성과 상상력을 통한 개성적 창조성을 발휘시켜 바람직한 인간성을 개발하고 육성하는데 있다”<sup>3)</sup> 고 설명한다.

그러나 사실상 교육현장에서는 교수 방법적인 면에서 개성적 창조성과 미적 감수성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보다는 기능위주의 사실적이고 모방적인 표현을 강조하는 수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구상미술 위주의 학습은 미술의 기초 원리를 습득하게 하며, 표현력을 증진 시키는데 유익하나 한쪽으로 편중된 교육방식으로 인하여 학생들은 자신 내면 감정의 표현이나 창의적 표현에 대해 어색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표현에 있어서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었다.

2) 교육과학기술부(2008),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IV 체육, 음악, 미술」, 대한교과서, p.200.

3) 김삼량(1992), 「미술교육개론」, 미진사, p.14.

추상미술은 어떠한 형식이나 사실적인 표현에 구속받지 않으며 자유로운 점, 선, 면 등의 순수한 조형요소와 원리로 표현된다. 작가의 내면세계를 표현하는데 있어서 보다 직접적인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사실의 재현이 아닌 새로운 조형미를 창출하는 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 것이다.

이제껏 소홀히 여겨져 온 추상미술이 구상미술과 함께 수업에서 적절히 분배되고 다루어진다면 창의적인 표현과 더불어 정신적이고 내적인 감성 표현에 탁월한 청소년과 미래의 예술가들로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이에 본 연구자는 중학교 미술과정에서 추상미술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표현중심의 미술교육이 주가 되는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교과서 분석과 구체적인 설문조사를 통하여 추상미술교육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중학교 미술 과정에서 추상미술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교과서 내용조사 연구와 실증적 현장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추상미술 교육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추상미술의 개념과 역사, 추상미술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문헌연구를 하였다.

둘째, 중학교 미술 교과에서 추상미술 분석을 위해 제 7차 교육 과정 개편에 따라 간행된 2종의 교과서를 수집하여 구상미술의 내용과 함께 비교, 분석하였다.

셋째, 추상미술 교육의 실태조사를 위해 제주도내 소재하는 중학교 8곳에서 남·여 중학생 2학년 395명을 대상으로 현장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넷째,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 논의한 후 앞선 연구를 종합하여 중학교 미술교육의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 Ⅱ. 추상미술의 이론적 고찰

### 1. 추상미술의 개념 및 역사

#### 1) 추상미술의 개념

추상이란 용어는 미술에 사용되기 이전에 이미 일상적으로 쓰이고 있는 말이다. 이 때 추상의 의미는 구체적인 것에 상대적인 개념으로 비구체적인, 애매모호한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러한 추상의 용어가 갖는 성격으로 인하여 추상미술 자체가 애매모호한 미술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러나 “비구체적이요 애매모호한 것은 그림 속의 대상을 향한 것이지 실은 그림 자체는 아니다.”<sup>4)</sup> 라는 말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추상미술 자체를 애매모호하다고는 할 수 없다. 추상미술 속에는 분명히 감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선과 색채, 그것들의 상호작용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추상’은 “사물의 전체 표상을 구성하는 모든 특징·속성·관계 중에서 하나 또는 몇 개를 떼어내어 그것만을 본질적인 것으로 독립시켜 사물의 대상으로 삼는 분석적 정신작용”<sup>5)</sup> 이다. 덧붙여 ‘추상미술(Abstract Art)’은 “대상을 사실적으로 재현하지 않고 순수 형식 요소나 주관적 감정을 표현하는 미술”<sup>6)</sup> 이다.

추상의 의미가 표상을 구성하는 모든 것 가운데 몇 개를 떼어내어 본질적인 것으로 독립시키는 것이라면, 미술에서 추상은 표상을 구성하는 물질 가운데 사물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이고 내면적인 것을 점, 선, 형, 색 등의 순수 형식 요소로 독립시키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추상미술의 대상이 갖는 성격이 애매모호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추상화가 사물의 환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사물의 본질과 인간의 내면세계를 순수한 조형요소나 조형원리 만으로 표현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19세기의 화가 모리스 드니(Maurice Denis, 1870~1943)는 회화를 이렇게 정의한 바 있다. “회화는 균마나 누드와 같은 어떤 것에 앞서 본질적으로 일정한 질

4) 오광수(1988), 「추상미술의 이해」, 일지사, p.47.

5) 한국브리태니커회사(1997), 「브리태니커 세계 대백과사전 (제20권)」, p.628.

6) 상계서, p.628.

서에 의해 집성된 색의 표면이다” 모리스 드니는 그림이 어떠한 현실적 이미지 되기 전에 구체적인 색의 표면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이러한 순수 조형요소로 표현되는 추상미술의 존재가치를 더 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추상미술은 이처럼 미술의 근본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20세기에 가장 먼저 추상화를 시도했던 칸딘스키(Wassily Kandinsky, 1866~1944)는 추상미술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 순간을 이렇게 회상하고 있다.

“1910년 어느 날, 밖에서 일을 마친 나는 해질 무렵 내 그림만 골똘히 생각하면서 화실로 돌아왔다. 화실에 들어선 나는 안에서 비치어 나오는 광선으로 눈부시게 빛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그림 하나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이 신비로운 그림에서 내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은 형과 색뿐이었고 어떤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순간 나는 이 그림이 옆으로 잘못 놓인 내가 얼마 전에 그렸던 그림인 것을 깨달았다. 다음날 나는 이러한 감동을 살려보려고 하였으나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했다. 내가 그렸던 그림을 어제처럼 다시 옆으로 눕혀도 보았으나 언제나 그려진 대상만 보일 뿐, 어제의 색과 형으로만 된 황혼의 광채는 다시 보이질 않았다. 비로소 나는 내 그림 속의 대상이 그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7)

칸딘스키는 그림의 어떠한 대상이 제거됨으로 새로운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지금까지 ‘보이는 것’ 이라고 믿어왔던 대상을 그림 속에서 제거하는 일이야말로 자기의 할 일이라고 믿게 되었다. 칸딘스키는 그림에서 감동을 가져다주는 것이 어떠한 대상이 아닌 그림의 근본적인 조형요소인 선과 색, 형태의 조화에서 오는 것이라 느꼈던 것이다.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 묘사할 때 우리는 내적인 감정표현보다는 대상의 묘사에 집중하기 쉽다. 그러나 구체적 대상이 사라진 선과 색, 형, 질감 등의 순수한 조형요소로 이뤄진 작품을 제작할 때 작가는 내적인 소리에 집중하게 되며 보다 본질적인 색과 형의 조형요소에 몰두하게 된다.

추상에 대한 발상은 심상적인 것 자체에서 나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순수 조

7) 김혜성(1991), 「현대미술을 보는 눈」, 열화당, p.54.

형 요소 자체에서도 나올 수 있으며, 자연의 형상이나 물체에서 느낀 공통된 질서의 형태와 아름다움을 통해서도 나올 수 있다.

추상미술의 대표화가인 칸딘스키나 몬드리안(Piet Mondrian, 1872~1944)은 모두 자연에서 표현 대상을 찾아 그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의 작품의 말미에 자연적 대상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으며 순수한 선과 색의 혼합만 보일 뿐이다. 그들이 시각화하는 과정은 서로 달랐는데 칸딘스키가 자유로운 형과 색채의 어울림으로 그의 내면의 감정을 서정적으로 표현했다면 몬드리안은 형태에 있을 수 있는 최소한의 질서를 선과 색의 비례로 냉정하게 표현하였다는 점에서 미술사에서 뜨거운 추상과 차가운 추상의 대표적 화가로 불린다.

추상화는 20세기 초부터 피카소(Pablo Ruiz Picasso, 1881~1973)의 입체파(Cubism), 마티스(Henri Emile BenoIt Matisse, 1869~1954)의 야수파(Fauvisme), 이탈리아의 미래파(Futurism), 러시아의 광선주의(Rayonism), 절대주의(Suprematism), 구성주의(Konstruktivism), 다다이즘(Dadaism)과 초현실주의(Surrealism), 신조형주의(Neo Plasticism), 1930년대 국제적 추상미술 운동, 2차 대전 뒤의 앵포르멜(Informel)과 추상표현주의(Abstract Expressionism), 미니멀리즘(Minimalism), 개념미술(Conceptual Art) 등의 여러 가지 미술 사조를 통하여 다양한 모습을 나타낸다.

## 2) 추상미술의 역사

미술에서 추상이란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때와 그 근거는 정확하지 않고 누가 먼저 사용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지 않다. 하지만 추상적 요소들은 오래전부터 예술과 실생활 속에 존재해왔다. 고대의 아라베스크 문양과 기하학 무늬, 이집트의 피라미드, 인도의 사원, 비잔틴 미술의 모자이크, 중세미술의 스테인드글라스 등이 그 예이다.

추상미술은 1910년대에 현실적 대상을 화면에서 적극적으로 추방시키려는 움직임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특정한 경향으로 대두되게 된다. 그러나 추상미술을 야수파와 입체파 같이 하나의 미술사조에 한정짓기 보다는 보다 넓은 영역에서 의미를 짚어 보아야 한다.

추상미술의 두 가지 전통은 미술 평론가 알프레드 바(Alfred Barr, 1902~1981)가 정리한 것을 토대로 살펴볼 수 있다. 알프레드 바는 추상미술의 두 가지 주요 전통의 시

작점이 인상주의(Impressionism)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입체주의와 기하학적인 전통, 표현주의와 비기하학적인 전통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알프레드 바가 제시하는 과정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알프레드 바는 추상미술의 두 가지 주요 전통을 인상주의에서 쇠라, 세잔느를 거쳐 큐비즘의 물결을 형성하여 마침내 기하학적, 구성적 운동으로 확대되어가는 지적·구조적·건축적 방향과 역시 인상주의에서 출발하여 고갱과 그 추종자들을 거쳐 마티스의 포비즘, 칸딘스키의 초기표현주의에로, 그리고 다시 표현적 추상으로 확대되어가는 신비적·자발적·비합리적 방향으로 이야기 하고 있다. 전자를 정신적인 면에서 큐비스트·기하학적인 전통으로 후자를 표현주의·비기하학적 흐름으로 보고 있다” 8)

인상주의가 추상미술의 가장 직접적인 근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인상파 화가들이 색채가 지니고 있는 전통적인 고유색의 관념을 벗어나 색채의 자율성 획득을 가능하게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색채의 자율성은 세잔느(Paul Cézanne 1839~1906), 고흐(Vincent Willem van Gogh, 1853~1890), 고갱(Paul Gauguin, 1848~1903)에 와서 더욱 분명한 개념으로 확대 된다.

20세기 추상미술로 발전되는 정신적 시조는 후기 인상주의 화가들에 의해 행해진 여러 시도들 중에서도 입체주의가 보다 더 현대적인 추상미술의 정신적 시조로 알려져 있다. 19세기 말의 사실주의 그림이 세잔에 와서는 회화가 자연을 재연하는 기능이 아닌 화면의 객관적 구조와 질서를 찾기 위해 선과 색으로 형태를 해체하고 이를 다시 원과 원추, 원통이라는 기하학적 기본 형태로 환원하여 대상을 표현하였다. 또한 다시점적인 시각을 도입하여 상대적 시간과 공간을 그의 화면에 등장시켜 후에 피카소, 브라크(Georges Braque, 1882~1963) 같은 입체파 화가를 탄생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기본적인 형태의 요소와 색채만을 사용하여 사물의 구조를 나타내려 하였던 세잔의 영향으로 인해 이후 화가들은 단순한 사물의 외적인면 이면에 내적인면에 대해 관심을 더하게 되었다. 입체주의는 입체파 화가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기하학적 추상미술로 발전하여

8) 오광수(1988), 전계서, pp.59~78.



미니멀리즘으로 이어진다.

또 다른 추상미술의 방향으로 발전되는 정신적인 시조는 표현주의의 중요한 요소인 상징주의를 나타내고 있는 후기 인상파의 고갱과 고흐를 선구자로 들 수 있다. 강렬한 색과 터치로 강한 감정을 표현한 현대 표현주의의 선구자격인 고흐는 프랑스의 야수와 화가와 독일 표현주의(Expressionism) 화가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고갱은 ‘예술이란 추상이다’ 라고 믿으며 모든 형태를 단순화, 평면화 시키면서 사실주의와 유사성이 없는 색채를 사용했으며 특히 야수주의와 입체주의에 영향을 주게 된다.

“후기인상주의 이후 그림은 자연의 모방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3차원의 세계를 평면 위에 옮긴 ‘추상’ 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탐구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것들이 배경이 되어 20세기 이후 화가들은 인습적인 구상화를 거부하고 색채와 형태의 순수성과 자율성을 찾아 나서게 되는 배경이 되었다”<sup>9)</sup> 이처럼 후기 인상주의(Post Impressionism) 작가들은 야수주의, 입체주의, 독일의 표현주의 등에 추상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하지만 20세기 초 유럽 현대미술에서 가장 중요한 야수파의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적 색채나 입체파의 다시집에 의한 형태의 해체는 완전한 추상화라고 볼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사물의 외적인 형상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추상미술은 1910년 전후에 비로소 탄생된다. 그것은 칸딘스키의 「추상수채」가 1910년에 제작되었다는 사실 때문이다. 현상세계와 관계를 단절하고 순수하게 추상을 독자적인 조형으로 구축한 화가로는 칸딘스키와 몬드리안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현대 추상미술의 창시자로 불리는 칸딘스키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태어나 프랑스 화가로 활동하였다. 모스크바 대학에서 법률과 경제학을 배웠으나 1895년 프랑스 인상파전에서 모네의 작품에 감명을 받고 이듬해인 뮌헨으로 옮겨 화가와 교수로 미술에 전념한 사람이다. 그는 비재현적 회화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이론과 실천을 통해 정당화시켰다.

그는 회화에서 구체적 형태 없이도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추상화를 탄생시켰

9) 유재길(1994), 「추상화 감상법」, 대원사, p.24.

는데 그가 추상에 접근한 것은 앞서 이야기 했듯이 1908년 뫼르나우에 살고 있을 때, 어느 저녁 무렵 화실로 들어온 그에게 옆으로 세워진 그의 그림에서의 감동이 그를 추상으로의 길에 들어서게 했다고 전하고 있다.

그는 대상의 구체적 재현에서 이탈하고 선명한 색채로써 교향악적이면서도 다이내믹한 추상표현을 관철한 후 점차 기하학적 형태에 의한 구성적 양식으로 들어갔다. 그는 「예술에서의 정신적인 것(Über das Geistige in der Kunst)」(1921), 「점·선·면(Punkt und Linie zu Fläche)」(1926) 등의 저술을 남겼다.

칸딘스키는 자신의 저서 「예술에 있어서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고 있다. “예술작품은 내적인 요소와 외적인 요소로 성립 된다. 내적인 요소는 예술가의 심성 가운데 있는 감정이며, 이러한 감정은 자연으로부터 받은 인상, 자발적이며 임의적인 즉흥, 검토와 수정을 거친 구성,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완성된다.”<sup>10)</sup> 그는 결국 추상회화가 내적인 것을 전달하는 것이며 물질 배후의 정신적인 본질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어떠한 하나의 유형을 고집하지 않고 기하학적인 것과 표현적인 추상의 세계를 넘나들며 다양한 작품들을 남겼다. 그는 자유로운 선과 형으로 열띤 감정을 표현하는 뜨거운 추상(서정적 추상, 유기적 추상)의 대표화가로 여겨지며 추상표현주의에 영향을 주었다. 2차 대전 후의 액션 페인팅, 앵포르멜 등이 칸딘스키의 영향을 받았다고 본다.

또한 기하학적 추상의 대표화가 몬드리안이 있다. 그는 자연 풍경과 사물의 형상을 단계적으로 변형시켜 나가다 결국에는 구성적 추상작업을 만들어 나가는데 그의 초기 작품은 인상주의와 같은 자연주의 화풍에서 시작해서 야수파, 입체파를 거치며 추상에 이른다. 그의 작품은 외부세계의 자연적 형태에서 벗어나 형태와 환영적 공간을 단순화시킨 검정색 직선과 색면으로 나타난다.

1910년 몬드리안의 풍경화에서는 자연의 형상이 완전히 제거되어 있는 모습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작품에서 몬드리안이 추구한 것은 자연의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순수한 색과 형의 조형적 구성, 그 자체인 것을 알아야 한다. 그는 조형적 구성작업이 다이내믹한 균형에 의해 이뤄지고 미의 본질은 이런 것들을 구체화시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 뒤 점차적으로 그의 작품에는 구체적 사물의

10) 칸딘스키, 권영필 역(1979), 「예술에 있어서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 열화당, p.12.

형태가 완전히 사라지고 수직과 수평의 그물 같은 선들이 그의 그림을 채우게 된다. 몬드리안은 자신의 작품세계에서 순수한 조형을 강조했다. 순수한 조형의 의미는 다음의 글에 잘 나타나 있다.

“순수한 사물의 실재를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고 말한 몬드리안은 ‘조형(plastic)’이란 말과 ‘실재(reality)’를 강조하고 있다. 그에 있어서 조형이란 순수 색과 선의 구성적 결합을 의미하며 실재는 조형적 표현의 결과를 말한다. 그가 생각한 조형은 사실적 표현과 연관된 환영과 반대되는 회화 자체이다. 곧 회화의 실재는 색채와 형태의 순수함이며, 구체적 형상이나 자연의 이미지를 느끼게 하지 못하는 시각 표현이 가장 순수한 조형의 실체라는 것이다”<sup>11)</sup>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네덜란드에서 몬드리안은 참혹한 인간들의 이야기나 풍경과 무관한 순수구성의 선과 색채관계를 요구하는 ‘신조형주의’ 미술운동을 일으킨다. 이러한 이론들은 1917년 반 두스부르흐(Theo van Doesburg, 1883~1931)와 반테어레크(Bart Van der Leek, 1876~1958) 등과 같이 「데 스틸(De stijl)」 잡지를 발간하면서 발표되었다.

몬드리안이 추구하였던 기하학적 추상화는 다이내믹한 균형과 대립된 균형을 나타내는 평면이다. 이것은 인식 가능한 주제나 자연의 사실적 묘사가 아니라 추상 공간과 구조 그 자체를 궁극적 목표로 삼는다. 그를 비롯한 신조형주의 추상 화가들은 이것을 새로운 건축과 현대디자인에 접목시켜 미의식에 혁명을 일으킨다.

그는 주지적 추상, 차가운 추상의 대표화가로 현대 디자인과 건축에 영향을 주었으며 2차 세계대전 전의 차가운 추상의 성격을 지니는 것은 신조형주의, 구성주의, 절대주의가 있으며 2차 대전 후의 옵아트(Optical Art), 미니멀 아트(Minimal Art)는 차가운 추상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 볼 수 있다.

---

11) 유재길(1994), 전계서, p.38.

## 2. 추상미술교육의 필요성

“미술을 위한 교육은 미의 생산자로서의 미술가나, 미의 소비자로서의 향유자를 양성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미술에 의한 미술을 통한 교육은 미의 창조 과정과 미술 활동, 그 자체를 인간 형성의 과정으로 하여 미술을 통한 심미적 인간을 양성하는 것이다.”<sup>12)</sup> 결국 미술교육은 미술 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 미술을 통한 교육으로 미술교육을 수단으로 삼는 교육으로 살펴볼 수 있다.

미술 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표현능력을 강조하여 전문적인 소양을 기르는데 주력할 수 있겠고 미술교육을 수단으로 삼는 교육에서는 표현능력보다는 미술을 통해서 정서교육이나 창의성교육에 주력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미술교육은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으며, 이 두 가지의 기능 중 하나에만 중점을 두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 한 것처럼 미술을 통한 교육보다 미술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에 목적을 가진 듯 한 교육이 주를 이루는 것처럼 보인다. 중등미술교육이 이뤄지는 일반적 대상이 미술부분에 특출한 소수의 인재가 아니라 다양한 학생들의 집단, 즉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기능 위주의 편중된 미술이 소위 소질 없는 학생들에게 미술시간이 어떻게 다가올 것인지 생각해봐야할 문제이다. 반면 추상미술은 특정한 형태나 일반성을 가지지 않고 기하학적인 형태로 표현되기 때문에 감정표현 뿐만 아니라 풍부한 창조력 개발을 가져오며 미술표현자체에 있어서도 자신감을 실어줄 수 있을 것이다.

독일의 미술 비평가이자 예술 심리학자인 루돌프 아른하임(Rudolf Arnheim, 1904~2007)은 그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추상회화에서 대상의 의미와 표현은 형, 비례, 방향, 색채 등에 관해서 분명히 규정되어 있는 형태로 성립되어 있을 때 뚜렷해진다. 관찰자가 과거의 경험에서 표현된 대상의 심리적 상태나 육체적 상태를 안다고 하는 것에 기초해서 표현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은 감정이입을 통해서 심리적, 육체적 상태에 놓아 볼 수가 있게 된다.”<sup>13)</sup>

12) 김재복(1977), 「미술과 수업의 평가」, 일지사, p.18.

13) 루돌프 아른하임, 김재은 역(1995), 「예술심리학(상)」, 이화여대 출판부, pp.58~59.

이것은 추상미술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더불어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며 배려하고 생각할 수 있는 관점을 키우는 인성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예술교육이 인성교육에 있어 유익함은 다음의 글에서도 볼 수 있다.

“정서의 요체가 되는 예술교육은 인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정신을 순화시킨다. 예술은 우리의 정감을 불러일으켜 살벌한 현실을 뜻뜻한 인간미나 체험에서 얻어지는 미감을 동반하여 우의적이고 상징적이며 환상적으로 변용시켜 준다. 그리하여 인간사회를 원만하고 명량하며 사랑에 넘치게 함으로써 비인간적인 위기를 극복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예술교육은 현실 사회에서 풀리지 않는 단결과 갈등, 부조리를 범 생명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sup>14)</sup>

또한 추상미술교육을 통하여 사실의 재현이 아닌 새로운 조형미를 창출하는 창의력을 기를 수 있다. 미술을 통한 인간교육을 강조한 미술교육학자 로웬펠드(Viktor Lowenfeld, 1903~1960)는 “창의성 개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친 것이 아니다. 분명한 것은 미술교육의 어떤 프로그램이든 가장 중요한 목표가 창의적인 사고의 주체인 개인을 발달시키는데 있다는 사실이다”<sup>15)</sup> 라고 주장하여 무엇보다 미술에 있어서 창의성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오늘날 현대미술에서 차지하는 추상미술의 비율은 굉장히 높아졌다. 전시장뿐만 아니라 도시환경이나 건물, 실생활 속에서도 추상의 형태를 많이 찾아볼 수 있게 되었으며 자연주의적인 미관만으로는 시각 환경을 이해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추상미술을 특수한 전문가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외면하여 버리거나 한편으로는 추상미술에 대해 궁금해 하지만 교육의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나쳐버리는 상황이 일반적인 것처럼 보인다. 추상미술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가치, 과정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추상미술을 아무렇게나 쉽게 그려진 의미 없는 그림으로 인식하고 말아 버린다. 이러한 모든 상황은 추상미술교육이 소홀하게 다뤄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예일 수 있다.

추상미술이 갖는 의의는 다음의 글에서도 잘 나타난다.

14) 김삼량(1992), 전계서, p.14.

15) 로웬펠드·브리테인(1993), 「인간을 위한 미술교육」, 미진사, p.30.

“추상미술은 현대미술에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런 중요성은 추상표현미술의 미적 특징에서가 아니라 교육적인 감화력을 통하여 인류를 비물질적 차원으로 고양하는 한편, 창조적인 재능을 발전시키고 강화함으로써 인류에 미치게 되는 유익한 효과라는 가치를 가진다. 인간의 평형 감각을 신장할 뿐만 아니라 직관적인 방향 감각을 자극하며 사고력을 원활하게 만들기도 한다.”<sup>16)</sup>

추상미술교육은 이처럼 정서교육, 인성교육, 창의성개발, 미술표현에 있어 자신감 형성, 실생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현대미술에 보다 넓은 이해와 공감을 가져오기에 유익할 것이다. 추상미술교육이 필요한 까닭은 바로 이와 같은 이유들 때문이다.

---

16) F. 프라시나 & C. 해리슨, 최기득 역(1991), 「현대회화의 원리」, 미진사, p.219.

### Ⅲ. 중학교 미술 교육과정 분석

#### 1. 중학교 미술 교육과정

제 7차 교육과정에서 교과 목표가 학교 급별 구분 없이 총괄 목표로만 제시되어 있었으나 개편된 교육과정에서는 교과의 총괄 목표와 초등학교에서는 학년군별, 중학교와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학교 급별 목표가 제시되어 있다.

학교 미술 교육의 기본 방향으로는 기초교육·활용교육·가치교육의 세 가지가 제시되는데 중학교 과정에서는 미술의 활용을 중심으로 교육하되 기초교육과 가치 교육을 함께 고려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미술 교과의 중학교 목표는 ‘생활 속에서 미술의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며, 목적과 의도에 맞게 표현을 계획하고 적용하며, 미술작품을 맥락적으로 해석하고 미술 문화의 의미를 이해한다.’<sup>17)</sup>고 제시되어 있다. 중학교 과정에서는 초등학교 과정에서 학습한 기초지식, 기능, 태도를 주변의 상황에 적용하여 자신이 배운 기초가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경험하게 된다.

개편된 교육과정에서는 7차 미술과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학습 분량을 최적화하고 수준과 범위를 적정화하기 위하여 내용 구성의 틀을 ‘미적 체험’, ‘표현’, ‘감상’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고 각 영역별로 필수 학습 요소를 선정하여 내용을 구조화 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적 체험’ 영역에서는 생활 속에서 미술이 적용되고 있는 것에서 미술의 기능과 역할을 찾아보고 미술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키도록 한다. 또한 ‘표현’ 영역에서는 주제의 특징과 목적, 의도에 맞게 적합한 표현 요소와 표현 과정을 계획하고 적용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감상’ 영역에서는 미술 작품을 사회적, 역사적 맥락에서 해석하고 미술 문화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한다.

‘미적 체험’, ‘표현’, ‘감상’ 을 미술과 내용의 대영역으로 보았을 때, 대영역

17) 교육과학기술부(2008), 전제서, p.204.

의 각 하부에는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여 제시하고 있는 중영역이 있는데 중영역은 대영역과 관련하여 배워야 하는 내용의 범위와 학년 군별 수준을 제시하고 있다. 미적 체험 영역은 2개의 항목, 표현 영역은 4개의 항목, 감상 영역은 2개의 항목의 중영역으로 구성된다.

바로 이와 같은 구성이 아래의 <표 1> 미술 교과 내용 체계로 제시되어 있다. 중학교 단계의 미적 체험 영역에서는 생활 속에서 시각 환경의 기능이나 역할을 찾아보고, 미술의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를 생각해 보며 해결 방안을 찾아보는 것을 강조하였다고 제시하고 있다. 표현 영역에서는 미술 경험을 생활과 연결하여 조형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강조 하였다고 제시하며, 감상 영역에서는 초등학교에서 익힌 미술 지식과 개념 등이 사회적으로 가지는 의미를 이해하고 비평할 수 있는 것을 강조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표 1> 미술 교과 내용 체계

영역	중학교 1, 2, 3학년(7, 8, 9학년)
미적 체험	1. 자연환경 • 자연환경과 시각 문화 환경의 조화에 관하여 이해하기
	2. 시각 문화 환경 • 시각 문화 환경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기
표현	1. 주제 표현 • 주제의 특징과 목적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2. 표현 방법 • 여러 가지 재료와 용구, 표현 방법을 사용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3. 조형 요소와 원리 • 조형 요소와 원리를 활용하여 주제의 특징과 목적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4. 표현 과정 • 표현 의도에 알맞은 표현 과정을 계획하기
감상	1. 미술 작품 • 미술 작품의 사회적, 문화적 의미를 해석하고 감상하기
	2. 미술 문화 • 미술 문화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기

※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08),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IV 체육, 음악, 미술」, 대한교과서, p.208.



## 2. 중학교 미술 교과서의 추상미술 분석

교과서는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도서 1종 교과서와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도서 2종 교과서로 구분된다. 학교장은 1종 도서가 있을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1종 도서가 없을 때에는 2종 도서를 선정, 사용하여야 한다.

한국의 미술교과서는 출판사가 교육부의 교과서 지침에 의해 제작한 후 교육부의 검정을 거치는 2종 교과서이다.

현재 한국의 중학교 미술교과서는 (주)교학사, 교학연구사, 도서출판지학사, 두산동아(주), (주)미래엔컬처그룹(구 대한교과서), 미진사, 일진사, (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 (주)지학사로 총 9종의 교과서가 출판되고 있다.

본 연구자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대상의 교육 범위에 맞추어 「중학교 미술」을 (주)교학사, (주)지학사 2종의 교과서를 통해 분석하였다.

기존의 관련 논문들에서는 추상미술교육에 관한 교과서 분석을 추상회화의 도판 분석으로 그치고 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사실상 추상회화의 도판은 추상미술의 내용이 미미한 부분에도 들어가 있거나 추상미술 내용과 구체적인 관련이 없이도 별개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어 도판으로 추상미술교육의 현황을 살펴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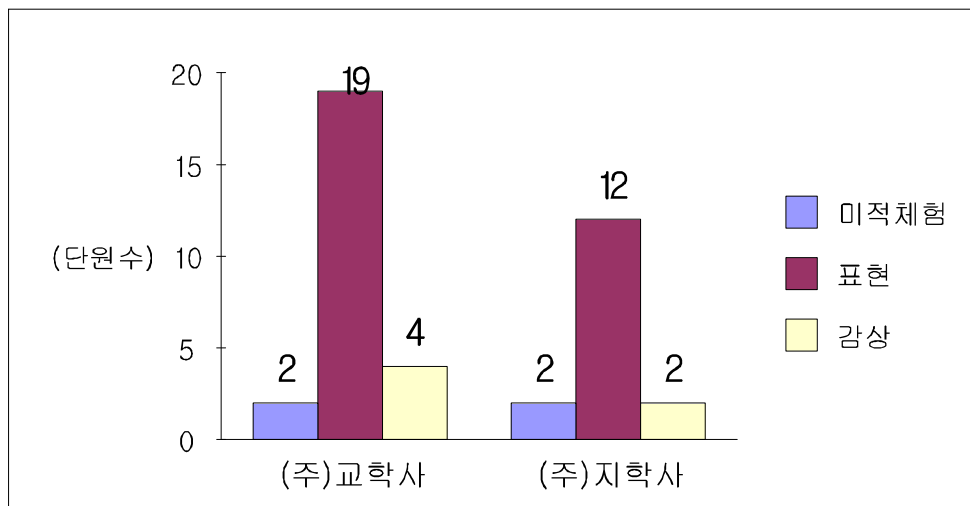
이 점에 아쉬움을 느낀 연구자는 실질적인 추상미술교육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가를 살피기 위해서 각 대단원에서 추상미술교육의 요소가 어느 정도 분명히 드러나는 소단원들을 개별적으로 추출하여 비중과 내용을 중점적으로 구상미술교육 부분과 함께 비교, 분석하였다.

구상미술이나 추상미술의 요소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애매모호한 소단원은 추출에서 제외하였고, 구상미술과 추상미술이 다분히 혼합적 성격을 띠는 것도 제외하였다. 그러다보니 미적체험, 표현, 감상의 세 영역 가운데 미적체험 영역과 감상 영역이 혼합되는 부분이 대부분으로 발견되었고, 이를 비교대상에서 제외하여 표현부분을 중점적으로 비교 분석 하였다.

### 1) 추상미술 교육의 비중

추상미술과 구상미술의 성격이 뚜렷이 구분되는 소단원은 표현 영역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었다. 그에 반해 미적 체험 영역과 감상 영역에서는 혼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소단원이 대부분이라 분석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었다. 미적 체험 영역에서는 주로 자연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미적 요소들이나 생활 속에 조형물들을 보며 실생활에서 미를 경험하고 이해하는 단원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감상영역에서는 역사적 흐름에서 살펴보는 미술과 작품 감상방법, 전통 미술 등의 단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표현 영역을 중점적으로 분석하다보니 전체에서 차지하는 표현 영역의 비중을 언급할 필요가 있음을 느꼈다. 그리하여 아래의 그림으로 제시하였는데 아래 <그림 1>을 보면 영역별 대단원의 수를 나타내어 전체에서 차지하는 표현영역의 단원의 수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2종의 교과서의 대단원을 영역별로 나누어 비교하여 살펴보았는데 먼저 (주)교학사의 교과서에서는 전체 단원 중 미적 체험영역 단원이 2개, 표현 영역의 단원이 19개, 감상 영역 4개로 표현영역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함을 볼 수 있다. (주)지학사의 교과서도 마찬가지로 미적 체험 영역 2개, 표현 영역 12개, 감상 영역 2개 대단원으로 표현영역이 대부분을 차지함을 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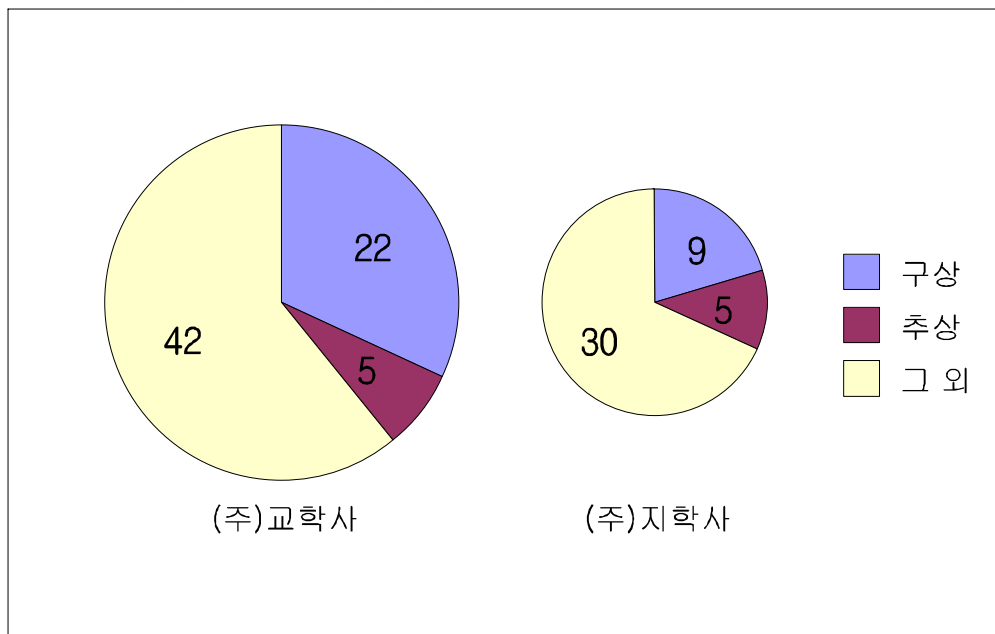
<그림 1> 영역별 대단원의 수

이제 구체적인 표현영역의 소단원 구성을 살펴보자. 아래의 <그림 2>는 표현영역의 소단원 수를 구상미술과 추상미술, 그 외의 세 가지 영역으로 분류하여 살펴본 것이다.

(주)교학사의 표현영역에서 대단원 19개는 소단원으로 69개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소단원 69개중 구상미술에 해당하는 소단원이 22개 단원, 추상미술에 해당하는 소단원이 5개 단원으로 나타나 추상미술 소단원은 구상미술 소단원의 4분의 1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부분은 혼합적인 성격을 띠거나 구상미술이나 추상미술이 아닌 독립적인 성격을 띠는 단원으로 42개의 단원이 있었다.

(주)지학사의 표현영역에서는 대단원 12개가 소단원 44개로 이루어져 있었다. 여기서 구상미술의 소단원이 9개, 추상미술의 소단원이 5개, 그 외는 30개 단원으로 파악되었다. (주)교학사에 비하면 추상미술 소단원이 구상미술 소단원의 2분의 1을 넘는 수치로 비교적 많다고 볼 수 있지만 2종의 교과서 모두 공통적으로 구상미술의 소단원에 비해서 추상미술의 소단원이 적은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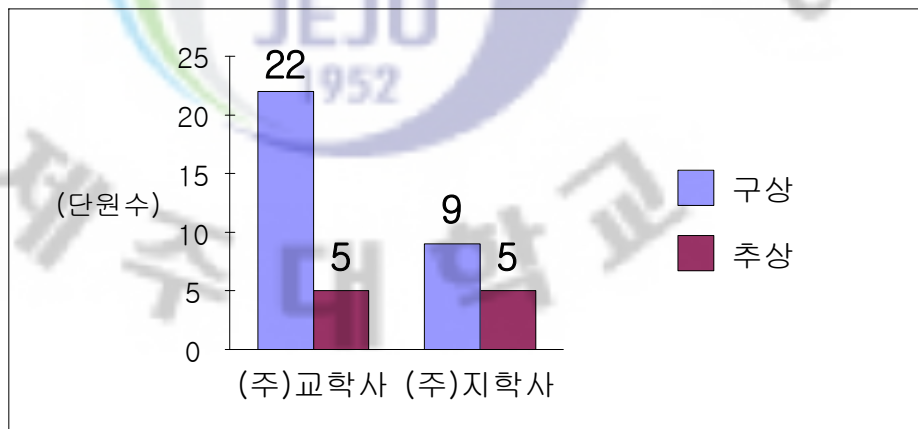
이를 통하여 교과과정에서 구상미술이 추상미술보다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 표현영역의 영역별 소단원 수

아래의 <그림 3>은 표현 영역 단위 중에서 구상미술과 추상미술 소단원의 수만을 분리하여 다시 비교한 것이다. 이렇게 추상미술 소단원과 구상미술 소단원을 추출하고 정리하여 비율을 살펴보니 예상했던 바대로 구상미술단원은 추상미술단원의 2배에서 4배의 수치로 많은 분량의 단원이 구성되어 있었다.

어느 한 쪽으로 편중된 수업이 이루어진다면 학생들의 미술적 재능 측면에서도 한 쪽만 비대한 모습으로 개발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따라서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추상미술 단원의 비율을 비슷하게 맞추거나 추상미술과 구상미술을 통합한 단원의 구성을 늘리는 것도 현재의 미술교육을 보완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그림 3> 표현영역의 구상미술 소단원과 추상미술 소단원 수

소단원의 분류로 추상미술 교육의 비중을 살펴보는데 도움이 되었으나 단지 단원으로만 비중을 살펴보기에는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였다. 하나의 소단원으로 구성 되어 있다고 해도 심도 있게 다뤄지는 단원이 있는가 하면 그저 가벼운 설명과 함께 개념 정도만 살펴보는 정도로 지나가는 단원도 있다는 것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각 소단원에 배당되는 시간을 계산해 본다면 좀 더 실질적인 비중을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본 연구자는 교과서의 교사용 지도서에 제시되어 있는 연간 지도 계획표를 참고하여 각 소단원 별로 주어진 할당시간을 계산해 보기로 하였다.

<표 2> 구상미술 소단원의 시간배당

종류	대단원	소단원		시간배당	합	
				시간(분)	시간(분)	
(주) 교학사	표현의 즐거움	1	관찰과 표현	0.2(12)	8.8 (528)	
	빛과 명암 그리고 그림자	2	물체의 기본형	0.7(42)		
		3	선으로 그리기			
	사물의 아름다움	4	사물의 표정을 살펴서	1.5(90)		
		5	정물의 짜임새			
		6	정물화 그리기			
	화면에 나타난 공간감	7	정물의 역사	0.9(54)		
		8	풍경의 아름다움			
		9	다양한 원근의 표현			
	인물의 아름다움	10	언제부터 풍경화가 그려지기 시작하였나?	1.5(90)		
		11	다양한 인물의 표현			
		12	움직임과 표정을 살펴서			
	전통회화	전통회화의 아름다움	13	자신의 내면을 찾아서		2.5(150)
			14	전통회화의 아름다움		
			15	수묵화		
			16	수묵담채화		
			17	학교풍경 그리기		
			18	채색화		
			19	채색화로 나타내기		
	생활 속에서	생활 속에서	20	새롭게 보이는 세상		1.5(90)
			21	일상 속에서		
			22	풍속화		
(주) 지학사	주변의 것을 살펴서	1	나의 미술세계	3.2(192)		
		2	한 가지 색으로 마음껏 그리기			
		3	정물과의 속삭임			
		4	깊이와 넓이와 계절을 담아			
		5	자신의 이야기를 담아서			
	전통 회화의 멋을 이어서	6	먹으로 그린 그림	1.6(96)		
		7	먹과 채색의 어울림			
	입체로 말하기	8	질감과 표정을 살려	0.7(42)		
	디자인의 세계	9	내 생각을 만화로	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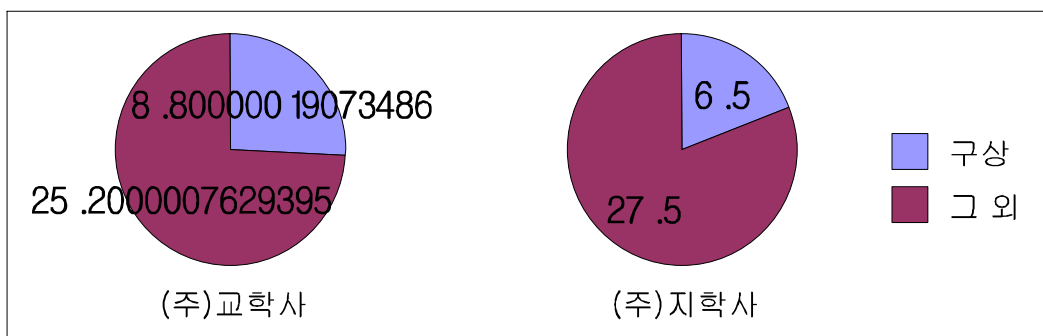
앞장의 <표 2>는 교과서의 교사용 지도서에 제시되어 있는 연간 지도 계획표를 참고하여 구상미술에 관련된 각 소단원에 배당된 시간을 계산하여 통합해 본 것이다.

(주)교학사는 총 22개 단원으로 528분이 나왔다. 연간 34시간 가운데 8시간 48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아래의 <그림 4>는 구상미술 소단원에 할당되는 시간의 합을 도표로 나타낸 것이다. 구상미술 수업은 전체 미술 수업 시간 가운데 4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중학교에서의 한 시간 수업이 45분이라는 것을 염두에 둘 때 실제적인 시간은 6시간 36분 정도로 축소된다. 다음 (주)지학사는 총 9개 단원으로 390분이 나왔다. 연간 34시간 가운데 6시간 30분으로 이 역시 한 시간 45분 수업을 염두에 둘 때 실제적인 시간은 5시간 정도로 계산된다. (주)지학사도 (주)교학사와 비슷하게 전체 시간의 5분의 1가량을 구상미술이 차지함을 볼 수 있다.

단순히 소단원의 비율만을 보았을 때는 (주)교학사의 경우 69개의 소단원 중 구상미술 소단원이 23개로 표현영역의 3분의 1의 수치를 보였고, (주)지학사의 경우 44개의 소단원 중 구상미술 소단원은 9개로 5분의 1정도의 수치를 보였다.

구상미술 소단원의 시간배당 합의 비율은 (주)교학사가 4분의 1가량으로 소단원 수에 비해 배당되는 시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지학사의 경우는 소단원의 비율과 시간배당의 비율이 동일하게 5분의 1정도가 나왔다.

이렇게 구상미술 소단원의 수와 시간배당을 통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극적인 차이는 아니었지만 미세한 차이를 통해 구상미술 교육의 보다 실질적인 비중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림 4> 구상미술 소단원의 시간배당 합

아래의 <표 3>은 앞에서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교과서의 교사용 지도서에 제시되어 있는 연간 지도 계획표를 참고하여 추상미술 소단원을 추출하여 각각의 할당시간과 합을 계산한 것이다.

(주)교학사는 총 5개 단원으로 126분이 나왔다. 2시간 6분 정도의 시간이 할당되는 것인데 연간 34시간에 비교했을 때 전체시간의 16분의 1정도의 수치가 나온다. 여기서 1시간이 45분 수업인 중학교 수업시간을 고려했을 때 실질적인 시간은 1시간 36분 정도가 된다.

(주)지학사 역시 총 5개 단원으로 (주)교학사보다는 많은 210분이 나왔는데 이것은 3시간 30분 정도로 전체시간의 약 10분의 1정도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시간을 계산했을 때는 2시간 36분 정도로 파악할 수 있다.

<표 3> 추상미술 소단원의 시간배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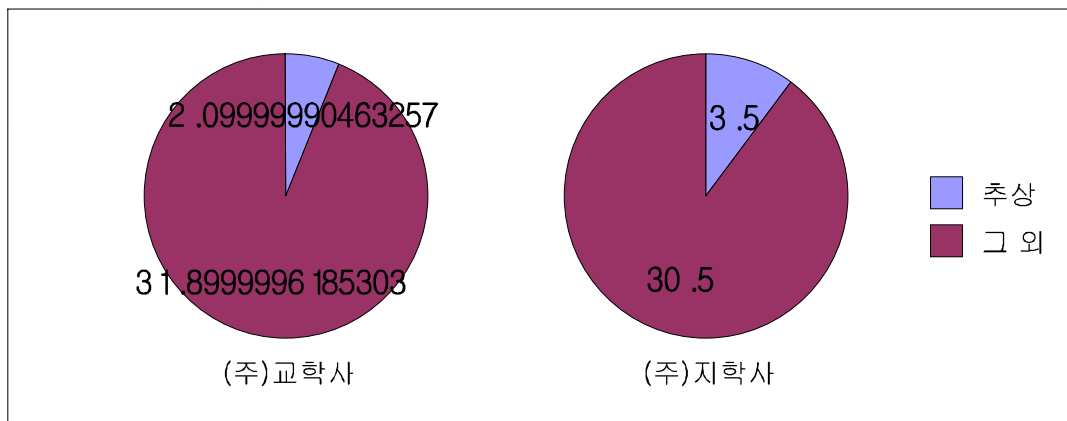
종류	대단원	소단원		시간배당	합
				시간(분)	시간(분)
(주)교학사	표현의 즐거움	1	오감을 체험하고 그 느낌을 나타내면	0.4(24)	2.1(126)
		2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추상표현	3	추상으로 표현하기	0.9(54)	
	심상의 세계	4	미술과 음악의 만남	0.5(30)	
	다양한 현대조소	5	추상 조형의 즐거움	0.3(18)	
(주)지학사	선에서 이미지로	1	선을 사용하여 마음껏 그리기	1.5(90)	3.5(210)
		2	선에서 형으로		
		3	톡톡 튀는 연상		
	자유로운 사고, 다양한 표현	4	새로운 발상에서 추상의 세계로	2(120)	
		5	여러 가지 표현 방법		

아래의 <그림 5>는 앞의 <표 3>의 추상미술 소단원의 시간배당을 도표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5>를 통해 연간 34시간 중 전체시간에 비하였을 때 추상미술 소단원에 할당되는 시간의 합을 볼 수 있다.

소단원의 수로 추상미술의 비율을 살펴보았을 때는 (주)교학사의 경우 전체 69개의 소단원 중 5개가 추상미술 소단원으로 14분의 1정도의 수치를 나타내었고, (주)지학사의 경우 전체 44개의 소단원 중 5개가 추상미술 소단원으로 9분의 1정도의 수치를 나타냄을 볼 수 있었다.

(주)교학사의 경우 소단원의 수로 살펴보았을 때의 전체에서 추상미술의 비율이 14분의 1정도가 나타났지만 시간배당으로 살펴보았을 때는 추상미술의 비율이 전체의 16분의 1로 나타나 소단원 수에 비해 적은 시간이 배당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그에 따른 비중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주)지학사의 경우는 전체에서 추상미술 소단원의 수로 살펴보았을 때는 10분의 1로 나타났고 시간배당으로 살펴보았을 때는 전체의 9분의 1정도가 나타났는데 이 경우 미미하긴 하지만 할당된 단원의 수보다는 시간이 좀 더 배당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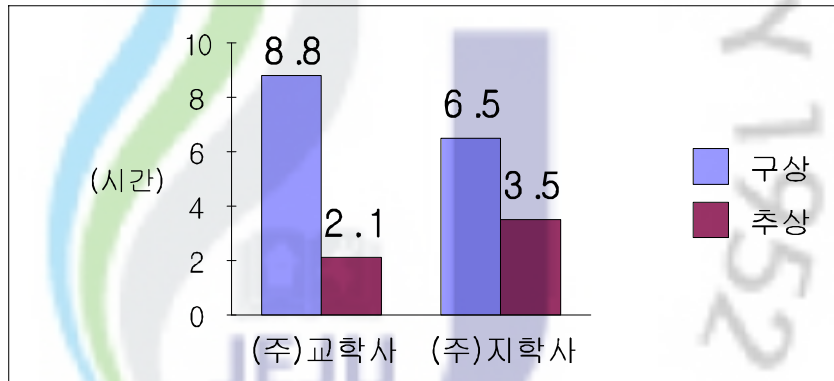


<그림 5> 추상미술 소단원의 시간배당 합

다음 장의 <그림 6>은 구상미술 소단원과 추상미술 소단원의 1년간 할당된 시간을 비교한 것이다. 소단원 수의 비교에서는 추상미술이 구상미술에 비했을 때 (주)교학사의 경우 4분의 1, (주)지학사의 경우 2분의 1의 수치가 나왔는데 할당



된 시간을 기준으로 추상미술을 구상미술에 비교했을 때 (주)교학사의 경우 동일하게 4분의 1, (주)지학사의 경우 역시 동일하게 2분의 1 정도가 나왔다. 결과적으로 소단원 수와 시간배당의 비율은 동일함을 볼 수 있었다.



<그림 6> 구상미술 소단원과 추상미술 소단원의 시간배당 비교

## 2) 추상미술 교육의 내용

구상미술 소단원은 (주)교학사의 경우 22개 단원, (주)지학사의 경우 9개 단원으로 (주)교학사와 (주)지학사의 추상미술 소단원이 5개인 것을 생각했을 때 구상미술 단원은 추상미술 단원의 2~4배수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양적으로 방대한 구상미술 단원에서 추상미술 단원보다 다양하고 깊은 범위에 내용들을 다룰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뒷장에 나오는 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다음 장에 나오는 <표 4>와 <표 5>는 구상미술 소단원의 학습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표 4>로 나타낸 (주)교학사의 경우는 구상미술 중에서도 정물화, 소묘, 풍경화, 인물화, 전통회화, 풍속화의 큰 6가지의 주제들이 다뤄져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큰 주제들은 다시 뜻과 역사, 재료의 종류, 표현방법 등으로 설명되어 나누어져 있었고 표현방법으로 제시된 것은 시각에 따라 표현하기, 선으로 표현하기, 원근감과 계절감 표현하기 등 그 종류가 다양했다.

총 22개 단원 중에 작품제작에 중점을 둔 소단원은 10개 단원, 이론적인 부분과 작품제작의 혼합적 성격을 띠는 소단원은 7개 단원, 역사나 감상 등의 이론에 중점을 둔 소단원은 5개 단원이 있었다.

<표 4> 구상미술 소단원의 학습내용 I

종류	대단원	소단원	학습내용	
(주) 교학사	표현의 즐거움	관찰과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을 다양한 시각으로 관찰하고 그 특징을 살려 표현하기</li> </ul>	
	빛과 명암 그리고 그림자	물체의 기본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물체의 기본형을 파악하고 빛과 명암, 그림자의 관계를 알아 입체감 표현하기</li> </ul>	
		선으로 그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묘의 종류와 재료의 특성을 이해하고 다양한 느낌의 선으로 표현해 보기</li> </ul>	
	사물의 아름다움	사물의 표정을 살펴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물을 관찰하여 대상의 특성 살리기</li> </ul>	
		정물의 짜임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짜임새 있는 배치와 형태, 색채의 특징을 살려 표현하기</li> </ul>	
		정물화 그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양한 재료와 표현 기법의 특성 살린 정물표현하기</li> </ul>	
	화면에 나타난 공간감	정물의 역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서양 정물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기</li> </ul>	
		풍경의 아름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변의 풍경을 보고 느낀 감동을 원근감과 계절감 살려 표현하기</li> </ul>	
		다양한 원근의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근의 여러 표현 방법을 알고 다양하게 표현하기</li> </ul>	
	인물의 아름다움	언제부터 풍경화가 그려지기 시작하였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서양 풍경의 역사에 대해 알고 작품 감상하기</li> </ul>	
		다양한 인물의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물화의 뜻과 종류를 알고 다양한 작품 감상하기</li> </ul>	
		움직임과 표정을 살펴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례, 균형, 표정과 자세에 유의하여 인물 표현하기</li> </ul>	
	전통 회화	자신의 내면을 찾아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화상의 뜻을 알고 자기 내면의 모습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기</li> </ul>	
		전통 회화의 아름다움	전통 회화의 아름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통 회화 재료와 용구를 이해하고 수묵과 채색화로 표현된 다양한 작품 감상하기</li> </ul>
			수묵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묵화의 기법을 살려 표현하기</li> </ul>
			수묵담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묵담채화 기법을 살려 표현하기</li> </ul>
			학교풍경 그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나무와 바위 그리는 다양한 방법을 살펴보고 학교 주변을 수묵, 수묵 담채로 표현하기</li> </ul>
			채색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채색화의 특징과 표현 방법을 이해하고 주제를 표현하기</li> </ul>
	채색화로 나타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통 채색 물감의 종류를 알고 채색화의 제작 과정을 이해하여 진채로 표현하기</li> </ul>		
	생활 속에서	새롭게 보이는 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점, 장소, 거리를 달리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대상을 표현</li> </ul>	
		일상 속에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상생활을 주제로 표현</li> </ul>	
		풍속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서양의 풍속화 감상하기</li> </ul>	

아래 <표 5>의 (주)지학사의 경우는 소묘, 정물화, 자화상, 전통회화, 부조, 만화의 역시 6가지의 큰 주제들이 다뤄져 있었고 여기서 세부적으로 들어가 뜻과 특징, 표현방법 등으로 설명되어져 있었다. 표현방법으로는 먹의 농담 살려 표현하기, 질감에 맞게 표현하기, 만화로 표현하기 등의 방법이 제시되어져 있었다.

총 9개 단원 중에 작품제작에 중점을 둔 소단원은 1개 단원, 정의나 특징 등 이론적인 부분과 작품제작의 혼합적 성격을 띠는 소단원은 6개 단원, 표현방법이나 재료 등의 이론에 집중한 소단원은 2개 단원이 있었다.

<표 5> 구상미술 소단원의 학습내용 II

종류	대단원	소단원	학습내용
(주)지학사	주변의 것을 살펴서	나의 미술세계	• 나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그림을 기록하고 소개하기, 포트폴리오 만들기
		한 가지 색으로 마음껏 그리기	• 소묘의 특징과 종류, 한 가지 색으로 마음껏 표현하기
		정물과의 속삭임	• 정물화의 표현방법, 여러 가지 채색 재료, 구도
		깊이와 넓이와 계절을 담아	• 원근감의 표현 방법, 디지털 카메라로 자연의 대상을 촬영하기, 투시화법, 색채 원근법
		자신의 이야기를 담아서	• 자화상의 표현 방법, 자신의 이야기가 담긴 자화상 그리기
	전통 회화의 멋을 이어서	먹으로 그린 그림	• 수묵화의 표현 특징, 수묵으로 표현하기, 전통 회화의 표현 기법, 선과 농담, 문인화와 사군자, 갈필이나 먹의 농담을 살려 표현하기,
		먹과 채색의 어울림	• 수묵 담채화와 채색화, 민화의 특징과 종류
	입체로 말하기	질감과 표정을 살려	• 재질감과 질감, 조형 요소와 원리, 표정 살려 깎거나 붙여서 표현하기, 부조 실물 뜨기, 부조 인물 표현하기
	디자인의 세계	내 생각을 만화로	• 만화의 유형, 표현 방법

<표 6> 추상미술 소단원의 학습내용

종류	대단원	소단원	학습내용
(주) 교학사	표현의 즐거움	오감을 체험하고 그 느낌을 나타내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오감 체험을 통해 다양한 방법과 기법을 활용하여 표현하기</li> </ul>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발상과 표현의 관계에 대해 이해하고 다양한 시각에서 관찰하기</li> </ul>
	추상표현	추상으로 표현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추상의 의미를 알고 추상 미술의 다양한 표현 경향에 대해 알기</li> <li>자연형과 추상형의 차이를 알고 추상화를 표현해보기</li> </ul>
	심상의 세계	미술과 음악의 만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음악을 듣고 연상되는 이미지로 표현하기</li> </ul>
	다양한 현대조소	추상 조형의 즐거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간 속에 나타난 입체의 미 이해하기</li> </ul>
(주) 지학사	선에서 이미지로	선을 사용하여 마음껏 그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의 느낌을 알고 자유롭게 표현하기 및 작품 감상하기</li> </ul>
		선에서 형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으로 감정 표현하기 및 작품 감상하기</li> </ul>
		톡톡 튀는 연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상되는 이미지 나타내기</li> </ul>
	자유로운 사고, 다양한 표현	새로운 발상에서 추상의 세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유로운 발상으로 다양하게 표현하기</li> <li>추상 미술의 의미</li> <li>추상화의 표현 방법</li> </ul>
여러 가지 표현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러 가지 표현 방법을 알고 다양하게 표현하기</li> <li>명화 바꾸어 표현하기</li> <li>포토몽타주 및 포토샵 활용하기</li> </ul>	

위의 <표 6>은 추상미술 소단원의 학습내용을 표로 나타낸 것이다. 추상미술의 경우 표현방법의 다양한 종류가 제시되고 그것이 주제화 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주)교학사의 경우 오감표현, 발상 표현, 추상표현, 심상표현, 조소 등의 5가지 주제가 다루어지고 있었다.

총 5개 단원 중에서 작품제작에 중점을 둔 단원은 2개 단원, 이론적 요소와 작품 제작이 혼합된 성격을 지닌 단원이 1개 단원, 이론부분에 중점을 둔 단원이 2개 단원으로 파악 되었다.

(주)지학사의 경우 선 표현, 발상표현, 추상표현의 3가지 주제가 다루어지고 있었으며 세부적으로 명화 바꾸어 표현하기, 포토몽타주 등의 예시가 제시되어 있었다.

총 5개 단원 중에서 작품 제작에 중점을 둔 단원은 1개 단원이 있었고 나머지 4개 단원은 이론적 부분과 작품제작이 통합되어 혼합적인 성격을 띠었다.

구상미술을 살펴보았을 때 소단원이 구상미술에 대한 하위 주제로 이루어져 있었고 학습내용에서는 다양한 표현방법들을 살펴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추상미술의 경우 소단원이 추상미술에 대한 하위 주제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학습내용에 들어가도 될 표현방법 자체가 주제화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구상미술 학습내용에 비해 추상미술 학습내용이 아직은 과도기에 있음을 느꼈다.

추상미술 학습내용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보다 단원을 세분화시켜 추상미술의 하위주제 항목을 만들고 주제를 표현방법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학습내용 안에 넣어서 추상미술의 역사 가운데 파생된 다양한 갈래의 흐름과 작품제작의 원리 가운데 표현방법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학습내용을 구체화시키고 심도 있게 다뤄야 한다고 본다.

## IV. 제주도내 추상미술 교육의 실태

### 1. 설문조사 절차와 방법

#### 1) 조사대상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내의 중학교 중 제주시에 소재하는 시내 중학교 3곳(제주사대부중, 제주서중, 한라중)·시의 중학교 1곳(귀일중)과 서귀포시에 소재하는 시내 중학교 1곳(중문중)·시의 중학교 1곳(대정중)으로 총 6개 학교에서 남녀 중학생 2학년 3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학교 분포 비례 상 제주시를 4곳, 서귀포시를 2곳으로 선정하였고 여기에는 시외곽지의 학교도 대표적으로 1곳씩 포함시켰다. 국립·공립·사립학교는 특별히 구분하지 않았으며 남녀의 균등한 답변을 듣기 위해 여학생과 남학생의 답변을 동시에 들을 수 있는 남녀공학을 선택했다. 각 학교당 남학생 반과 여학생 반 두 개 반씩을 조사하였다.

미술교과의 운영방침에 따라 중학교 1·2학년 과정이 묶여져 있는 것을 염두에 둘 때 1학년을 대상으로 하기엔 수업 경험이 너무 적었고,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엔 고입선발고사 준비로 온전한 수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가장 최적의 대상이라고 여겨졌다. 그리하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년 과정이 마무리되는 12월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2) 절차와 방법

설문지는 선행연구들에서 사용한 것을 모델로 하여, 연구자가 연구의 특성과 앞서 살핀 이론적 기초와 선행연구 문헌을 감안하여 수정 보완하고 완성한 것이다.

설문지의 문항은 총 25개로, 미술 일반에 대한 문항 4개, 선호영역에 대한 문항 4개, 추상미술 감상 경험에 대한 문항 2개, 추상미술의 이해와 수업·관심영역에 대한 문항 9개, 추상미술과 감정표현에 대한 문항 4개,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문항 2개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의 설문지는 각 학교 미술담당 교사들의 도움을 받아 배포 및 회수하였

다. 설문지는 2010년 12월 11일부터 2010년 12월 30일 사이에 배포하였으며, 배포한 총 480부 설문지 가운데 수집된 설문지 395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OMR(Optical Mark Reader)을 이용하여 엑셀로 통계처리 하였으며 통계된 정보를 응답자수와 백분율로 구분하여 표에 나타내었다. 백분율은 소수점 한자리까지 나타내었으며 다만 그림에서는 소수점 한 자리 이하를 반올림 처리하여 보기 쉽게 그래프 처리 하였다. <표 7>은 설문지 문항 구성을 표로 나타낸 것이다.

<표 7> 설문지 문항 구성

문항 분류	조사의 주요 관점	설문문항(수)
미술 일반에 대한 문항	1. 일주일간 할당되는 미술시간 2. 미술 수업시간 정도에 대한 만족도 3. 미술 수업시간에 대한 선호도 4. 미술시간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	1-4(4)
선호영역에 대한 문항	1. 미술에서 가장 선호하는 영역 2. 회화에서 선호하는 영역 3. 구상화 선호 이유 4. 추상화 선호 이유	5-8(4)
추상미술 감상 경험에 대한 문항	1. 추상미술 감상 기회 정도 2. 추상미술 감상 장소	9-10(2)
추상미술의 이해 · 수업과 관심영역에 대한 문항	1. 추상미술의 이해도 2. 이해 못하는 이유 3. 추상미술 이론 수업 정도 4. 추상미술 작품 제작 정도 5. 교과서 사용 정도 6. 추상미술 수업 시 배운 내용 7. 추상미술에서 이해가 어려운 부분 8. 추상미술에 대한 학습욕구 9. 추상미술에서 배우고 싶은 영역	11-19(9)
추상미술과 감정표현에 대한 문항	1. 추상미술에서 감정표현 여부 2. 감정표현에 대한 느낌 3. 감정표현이 어려웠던 이유 4. 사실과 감정표현 중 중시하는 부분	20-23(4)
인구통계학적 특성	1. 학생의 성별 2. 학교 소재 지역	24-25(2)

## 2. 설문조사 결과 및 분석

### 1) 미술 일반에 대한 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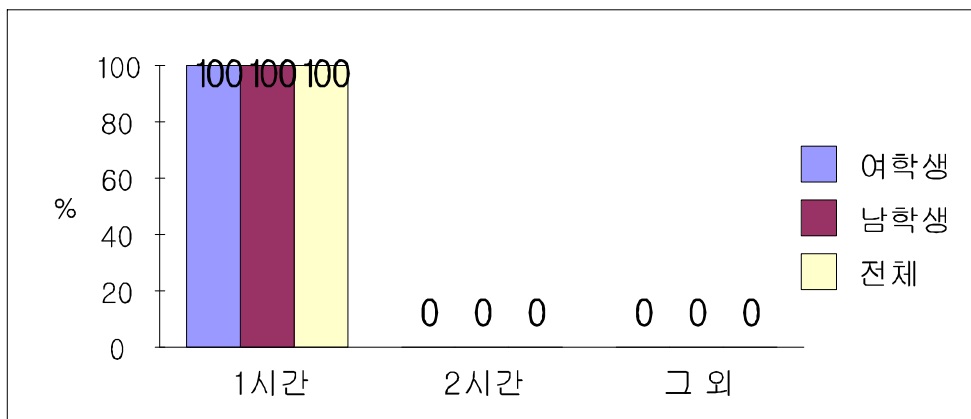
미술 일반에 대한 문항은 4개의 문항으로 일주일간 할당되는 미술시간, 미술 수업시간 정도에 대한 만족도, 미술 수업시간에 대한 선호도, 미술시간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 등 미술의 전반적인 인식에 대해 묻는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 ○ 설문 1. 학교에서 미술 수업은 일주일에 몇 시간씩 하고 있습니까?

<표 8> 일주일간 할당되는 미술시간

응답유형	여학생		남학생		전체	
	196명	100%	199명	100%	395명	100%
1시간	196	100.0%	199	100.0%	395	100.0%
2시간	0	0.0%	0	0.0%	0	0.0%
그 외	0	0.0%	0	0.0%	0	0.0%
- (무응답)	0	0.0%	0	0.0%	0	0.0%

이 문항은 일주일간 할당되는 미술시간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이다. ‘1시간’ 이라고 응답한 학생들은 전체 응답자의 100%로 앞에서 살펴본 교육과정에서 파악된 대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미술시간은 일주일에 1시간 이었다.



<그림 7> 일주일간 할당되는 미술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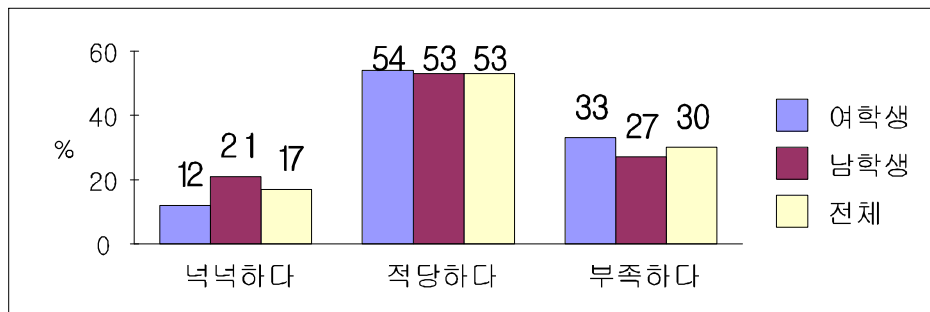
○ 설문 2. 1번에 표시한 미술시간 정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 9> 미술 수업시간 정도에 대한 만족도

응답유형	여학생		남학생		전체	
	196명	100%	199명	100%	395명	100%
너적하다	24	12.2%	41	20.6%	65	16.5%
적당하다	106	54.1%	105	52.8%	211	53.4%
부족하다	64	32.7%	53	26.6%	117	29.6%
- (무응답)	2	1.0%	0	0.0%	2	0.5%

이 문항은 위에서 조사한 일주일간 할당되는 1시간의 미술시간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이다. 응답결과 ‘적당하다’ 라고 응답한 학생들이 전체 응답자의 5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부족하다’ 라고 응답한 학생들이 전체 응답자의 30%로 두 번째를 차지했으며, ‘너적하다’ 라고 응답한 학생들이 17%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남학생의 비율을 살펴보았을 때 ‘부족하다’ 라고 답한 학생들은 ‘너적하다’ 라고 답한 학생들과 백분율이 27%, 21%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으며 여학생의 비율에서는 ‘부족하다’ 라고 답한 학생들이 ‘너적하다’ 라고 답한 학생들과 백분율이 33%, 12%로 남학생보다 많은 차이가 났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미술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이것은 성별에 따른 미술과목에 대한 선호도가 다르므로 나타날 수 있는 결과로 보인다. 또한 여성만의 또 다른 고유한 특성이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예상해 볼 수 있겠다.



<그림 8> 미술 수업시간 정도에 대한 만족도

○ 설문 3. 평소 미술 수업시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 10> 미술 수업시간에 대한 선호도

응답유형	여학생		남학생		전체	
	196명	100%	199명	100%	395명	100%
매우 좋아한다	25	12.8%	19	9.5%	44	11.1%
좋아한다	45	23.0%	39	19.6%	84	21.3%
보통이다	87	44.4%	89	44.7%	176	44.6%
싫어한다	24	12.3%	24	12.1%	48	12.2%
매우 싫어한다	15	7.7%	28	14.1%	43	10.9%
- (무응답)	0	0.0%	0	0.0%	0	0.0%

이 문항은 학생들의 미술 수업시간에 대한 선호도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이다. 응답결과 ‘보통이다’ 라고 응답한 학생들은 전체 응답자의 4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좋아한다’ 라고 응답한 학생들은 21%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싫어한다’ 에 응답한 학생들이 12%로 세 번째 순위를 차지하였고, ‘매우 좋아한다’ 와 ‘매우 싫어한다’ 에 응답한 학생들은 각각 11%로 동일하게 제일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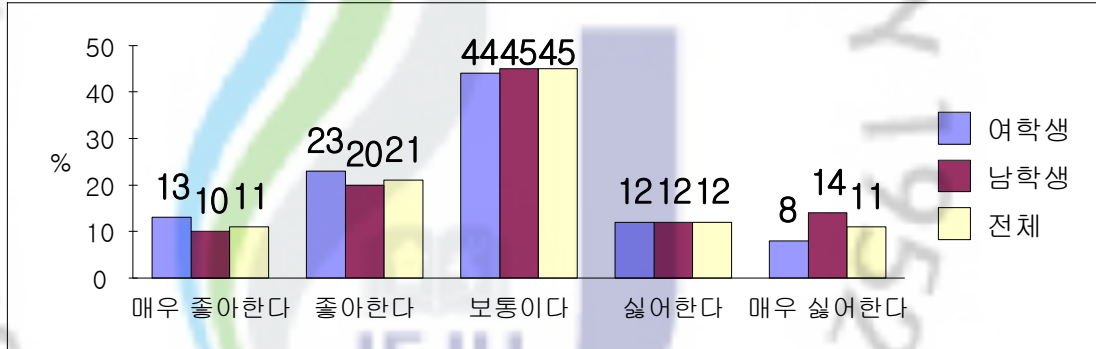
보통이라고 응답한 학생들을 제외했을 때 ‘매우 좋아한다’ , ‘좋아한다’ 라고 대답하여 미술수업을 좋아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학생들은 전체의 32%였고, ‘매우 싫어한다’ , ‘싫어한다’ 라고 응답한 미술수업을 싫어하는 학생들은 전체의 23%를 차지했다.

미술시간을 싫어하는 학생들에 비해 좋아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높았으나 그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학생들의 미술시간에 대한 선호도가 결과에 나타난 대로 보통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보인다.

2번의 문항에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미술시간의 부족함을 더 느낀다고 하여 그 요인으로 여학생들의 미술시간 선호를 들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였는데 실제 위의 결과에서 ‘매우 좋아한다’ , ‘좋아한다’ 로 답한 미술시간을 좋아하는 여학생은 36%로 남학생의 30%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술과목의 선호도에 있어서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

는 기질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 없겠으나 교사의 성비율에 있어 여성교사가 높은 비율을 차지함으로 인해<sup>18)</sup> 수업의 방향이 여학생이 흥미를 느끼는 쪽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본다.



<그림 9> 미술 수업시간에 대한 선호도

- 설문 4. (※ 3번 문항에서 ‘싫어한다, 매우 싫어한다’에 표시한 사람만 답하시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표 11> 미술시간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

응답유형	여학생		남학생		전체	
	196명	100%	199명	100%	395명	100%
미술에 소질이 없어서	32	16.3%	27	13.6%	59	15.0%
준비물을 챙기는 것이 부담스럽고 귀찮아서	7	3.6%	17	8.5%	24	6.1%
입시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아서	3	1.5%	10	5.0%	13	3.3%
기타	8	4.1%	16	8.0%	24	6.1%
- (무응답)	146	74.5%	129	64.9%	275	69.5%

이 문항은 미술시간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이다. ‘싫어한다’와 ‘매우 싫어한다’에 표시한 사람만 답하도록 하여 무응답자가 70%로, 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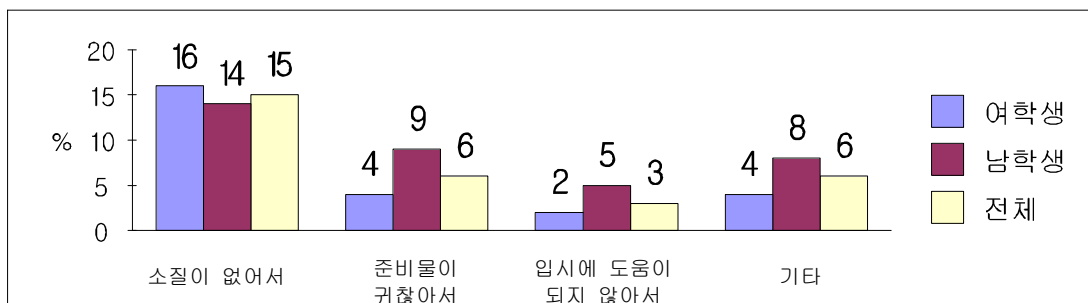
18) 2011년 4월 28일자 EBS뉴스에 의하면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조사한 결과 중학교의 여교사 비율은 64.6%로 남교사의 비율보다 15%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답자는 30%로 집계되었다. 3번의 문항에서 ‘싫어한다’와 ‘매우 싫어한다’라고 응답한 전체 학생의 비율이 23%인 것을 보았을 때 7%의 학생은 자신의 응답과 상관없이 문항에 답했다고 볼 수 있다.

학생들은 미술시간을 선호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를 ‘미술에 소질이 없어서’ (16%)라고 답하였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큰 이유를 ‘준비물을 챙기는 것이 부담스럽고 귀찮아서’와 ‘기타’로 꼽았으며 각각 6%의 동일한 수치로 파악되었다. 마지막으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인 ‘입시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아서’라고 응답한 학생은 3%를 차지했다. 미술시간을 선호하지 않는 기타 이유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내용으로는 ‘선생님이 싫어서’라는 응답이었다. 예상 외로 ‘입시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아서’라고 응답한 학생은 3%에 그쳐 입시위주의 교육이 미술시간 선호도와 크게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생들에게 소질이 없음이 미술을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파악되었는데 미술적 재능이 있는 소수에게 뿐만 아니라 소질이 없는 학생들에게도 의미 있고 흥미로운 수업으로 자리 하기 위해서는 미술 수업에 있어 새로운 변화가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소질이 선호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은 우리의 미술교육이 사실적이고 기술적인 면을 강조하는 구상미술 위주의 수업을 해왔음을 반증해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미술시간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가 소질 때문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남학생의 비율보다 여학생의 비율이 높았다. 또한 ‘준비물을 챙기는 것이 부담스럽고 귀찮아서’와 ‘입시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아서’, ‘기타’의 비율은 모두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림 10> 미술시간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

2) 선호영역에 대한 문항

선호영역에 대한 문항은 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질문은 미술의 상위영역에서 하위영역으로 확장된다. 문항은 미술에서 가장 선호하는 영역, 회화에서 선호하는 영역, 구상화 선호 이유, 추상화 선호 이유로 미술에서부터 구체적인 추상화의 선호에 관한 내용으로 접근해가도록 구성되어 있다.

○ 설문 5. 미술 수업에서 가장 좋아하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표 12> 미술에서 가장 선호하는 영역

응답유형	여학생		남학생		전체	
	196명	100%	199명	100%	395명	100%
회화	27	13.8%	29	14.6%	56	14.2%
조소	16	8.2%	24	12.1%	40	10.1%
판화	21	10.7%	38	19.1%	59	14.9%
디자인	129	66.1%	102	51.3%	231	58.7%
- (무응답)	3	1.2%	6	0.2%	9	2.1%

이 문항은 미술에서 가장 선호하는 영역에 대해 묻는 질문이다. 이 질문의 응답 중 5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디자인’ 이었고, 두 번째 순위로 ‘판화’ 가 15%, 세 번째 순위로 ‘회화’ 가 14%, 마지막으로 ‘조소’ 가 10%로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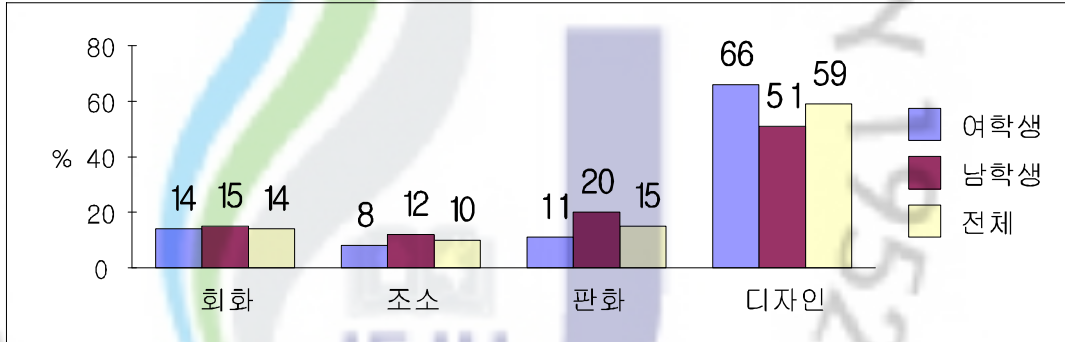
디자인 영역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한 이유로는 디자인 영역이 다른 영역에 비해 실생활에서 접하기 쉽고 활용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학습동기이론 교수전략 중에 ‘개별화(personalization)’ 전략은 “한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 지적 또는 감정적으로 학생과 관련된 예를 사용하는 과정”<sup>19)</sup> 을 말하는데 이것은 학생의 삶과 연결시켜 학습동기를 높이는 전략이다.

위와 같은 결과도 비슷한 맥락으로 보았을 때 디자인 영역이 학생들의 삶과 보다 근접하기 때문에 학생들로 하여금 많은 흥미를 느끼게 한 것이라 유추해볼

19) Paul Eggen · Don Kauchak(2009), 「교육심리학: 교육 실체를 보는 창」, 학지사, p.542.

수 있을 것 같다.

회화와 조소, 판화 등을 선호하는 비율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에 디자인 영역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림 11> 미술에서 가장 선호하는 영역

- 설문 6. 회화는 구상화(실재하거나 상상할 수 있는 사물을 그대로 나타낸 그림)와 추상화(사물의 사실적 재현이 아닌 작가의 느낌이나 생각을 순수한 점·선·면·색채에 의한 표현으로 그린 그림)로 구분됩니다. 이 둘 중에서 더 좋아하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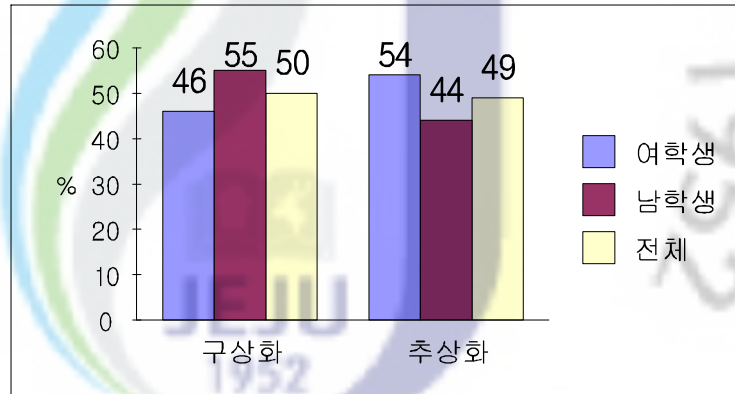
<표 13> 회화에서 선호하는 영역

응답유형	여학생		남학생		전체	
	196명	100%	199명	100%	395명	100%
구상화	90	45.9%	109	54.8%	199	50.4%
추상화	105	53.6%	88	44.2%	193	48.9%
- (무응답)	1	0.5%	2	1.0%	3	0.7%

이 문항은 회화에서 선호하는 영역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이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구상화’를 택한 학생이 50%, ‘추상화’를 택한 학생이 49%로 1%의 미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흥미로운 것은 여학생의 경우 ‘추상화’를 택한 학생이 54%로 ‘구상화’를 택한 46%의 여학생보다 10% 가량 높은 수치를 보였고, 남학생의 경우 반대로 ‘구상화’를 택한 학생이 55%로 ‘추상화’라고 응답한 학

생 44% 보다 10% 높은 수치를 보였다.

여학생이 추상화를 선호하고 남학생이 구상화를 선호하는 것은 예민한 감수성을 가진 여성의 특징상<sup>20)</sup> 느낌이나 생각을 표현하기에 추상화가 용이함으로 인하여 추상화를 더 선호하는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겠다.



<그림 12> 회화에서 선호하는 영역

- 설문 7. (※ 6번 문항에서 ‘구상화’에 표시한 사람만 답하시오.) 위의 문항에서 구상화를 좋아한다고 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표 14> 구상화 선호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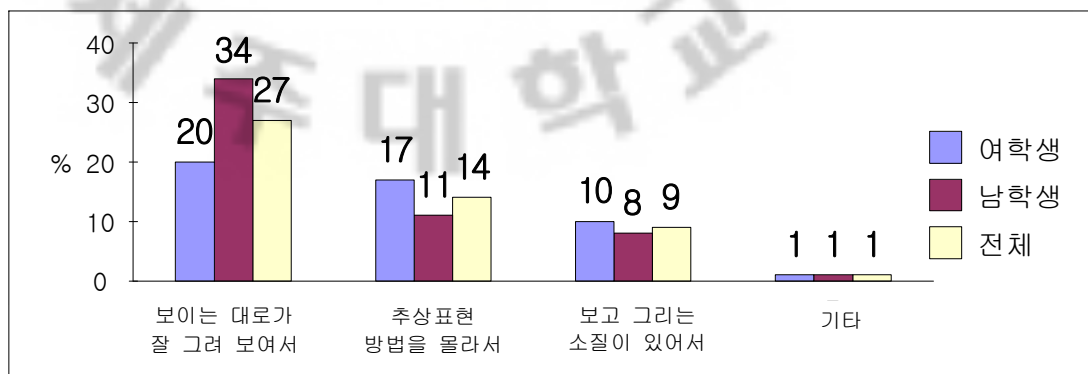
응답유형	여학생		남학생		전체	
	196명	100%	199명	100%	395명	100%
보이는 대로 그리는 것이 더 잘 그려 보여서	40	20.4%	68	34.2%	108	27.3%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33	16.8%	22	11.1%	55	13.9%
보고 그리는 소질이 있어서	19	9.7%	16	8.0%	35	8.9%
기타	2	1.0%	2	1.0%	4	1.0%
- (무응답)	102	52.1%	91	45.7%	193	48.9%

20) 여자 뇌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는 부분과 정서적인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크다. 여자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커뮤니케이션을 중시하고, 정서적인 반응에 예민하여 감수성이 뛰어난 것은 이러한 뇌구조 때문이다. - Brizendine Louann Md, 임옥희 역(2007), 「여자의 뇌, 여자의 발견」, 리더스북, p.33.

이 문항은 구상화를 선호하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이다. 6번의 문항에서 ‘구상화’를 선호한다고 응답한 50%의 학생에게만 답을 하도록 하여 무응답자가 49%, 응답자의 비율이 51%로 나타났다. 1%의 학생은 선호영역에 상관없이 답을 한 것으로 보인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보이는 대로 그리는 것이 더 잘 그려 보여서’에 응답한 학생은 전체학생의 27% 이었고,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가 두 번째 순위로 14%, ‘보고 그리는 소질이 있어서’라고 응답한 학생이 세 번째 순위로 9%, 나머지 ‘기타’가 1%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했다.

6번 문항의 결과에 의하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구상화를 더욱 선호하였는데 ‘보이는 대로 그리는 것이 잘 그려 보여서’라는 응답에서도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14% 가량 높은 34%의 비율을 보여줬다. 보이는 대로 그리는 것이 잘 그린 그림이라는 인식 역시 구상미술이 주가 되는 수업이 진행되어 왔음을 예상케 해준다.



<그림 13> 구상화 선호 이유

○ 설문 8. (※ 5번 문항에서 ‘추상화’에 표시한 사람만 답하시오.) 위의 문항에서 추상화를 좋아한다고 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이 문항은 추상화를 선호하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이다. 6번의 문항에서 ‘추상화’를 선호한다고 응답한 49%의 학생에게만 답을 하도록 하여 무응답자는 52%, 응답자의 비율은 48%로 나타났다.

추상화를 선호하는 학생 중에 1%의 학생은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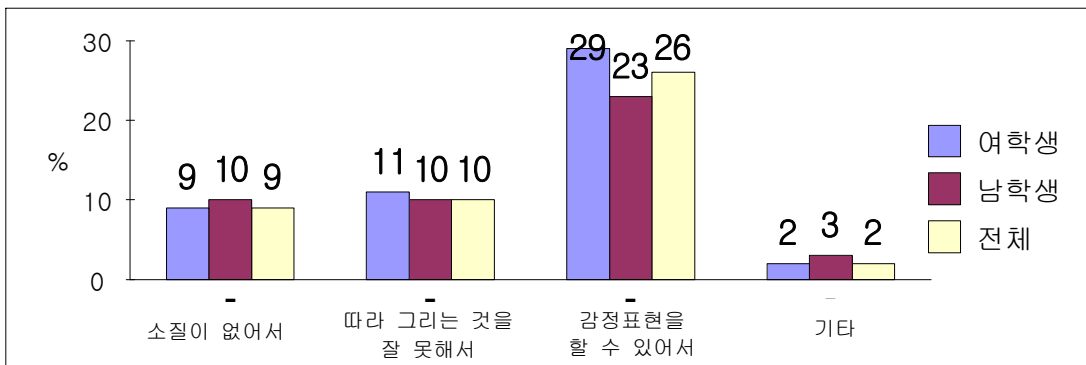


<표 15> 추상화 선호 이유

응답유형	여학생		남학생		전체	
	196명	100%	199명	100%	395명	100%
단순한 조형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멋있어 보여서	17	8.7%	19	9.5%	36	9.1%
따라 그리는 것을 잘 못해서	21	10.7%	20	10.1%	41	10.4%
감정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57	29.1%	45	22.6%	102	25.9%
기타	4	2.0%	5	2.5%	9	2.3%
- (무응답)	97	49.5%	110	55.3%	207	52.3%

추상화를 좋아하는 까닭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응답은 26%로 ‘감정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로 나타났고 두 번째 순위와 세 번째 순위로 ‘따라 그리는 것을 잘 못해서’와 ‘단순한 조형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멋있어 보여서’는 각각 10%, 9%의 미미한 차이로 나타났다. 그 외의 ‘기타’는 가장 낮은 비율인 2%로 나타났다.

6번 문항의 결과에 의하면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추상화를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추상화 선호 이유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감정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라는 여학생들의 응답은 남학생보다 6% 높은 비율인 29%로 나타났다. 남학생들보다 감수성이 풍부한 여학생들이 감정표현에 보다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학생들이 의외로 추상화를 통한 감정표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14> 추상화 선호 이유

### 3) 추상미술 감상 경험에 대한 문항

추상미술 감상 경험에 대한 문항은 2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문항은 추상미술 감상 기회정도, 추상미술 감상 장소를 묻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학생들의 실생활 가운데 추상미술 감상기회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파악하여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추상미술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 ○ 설문 9. 학교 밖에서 추상미술을 접하는 기회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표 16> 추상미술 감상 기회 정도

응답유형	여학생		남학생		전체	
	196명	100%	199명	100%	395명	100%
자주 접한다	5	2.6%	7	3.5%	12	3.0%
가끔 접한다	70	35.7%	65	32.7%	135	34.2%
거의 접하지 못한다	85	43.4%	73	36.7%	158	40.0%
전혀 접하지 못한다	33	16.9%	54	27.1%	87	22.1%
- (무응답)	3	1.4%	0	0.0%	3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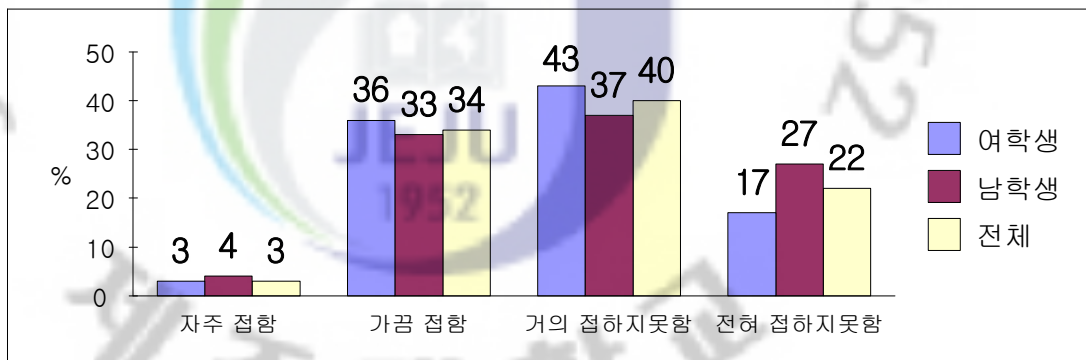
이 문항은 학생들이 추상미술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정도에 대해 묻는 질문이다. 이 질문의 결과로써, ‘거의 접하지 못한다’ 라고 답한 학생이 전체 응답자 중 4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가끔 접한다’ 라고 답한 학생은 34%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전혀 접하지 못한다’ 라고 답한 학생은 22%로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자주 접한다’ 라고 답한 학생은 3%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했다.

‘거의 접하지 못한다’, ‘전혀 접하지 못한다’ 라고 답해 추상미술을 접할 기회가 없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62%에 달했고, ‘자주 접한다’, ‘가끔 접한다’ 등 추상미술을 접할 기회가 있다고 한 학생은 37%에 불과했다. 이를 통해 많은 수의 학생들이 추상미술을 접할 기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밖에서 추상미술을 접할 기회가 없음으로 인해 학생들은 추상미술에 대해 더욱 무관심해버릴 수 있으나 사실상 현대미술에서 추상미술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교사는 학생들의 여건을 고려하여 추상미술교육에 소홀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실생활에 자리하고 있는 현대미술과 추상미술을 관련지어 통합적인 접근을 해야 할 것이다.

추상미술을 ‘거의 접하지 못한다’, ‘전혀 접하지 못한다’ 라고 답해 추상미술을 접할 기회가 없다고 응답한 여학생들은 60%, 남학생은 64%로 나타났고 추상미술을 ‘자주 접한다’, ‘가끔 접한다’ 등 추상미술을 접할 기회가 있다고 한 여학생은 40%, 남학생은 37%로 나타나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추상미술을 접하는 기회가 적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15> 추상미술 감상 기회 정도

○ 설문 10. 추상미술작품을 처음 접한 곳은 어디입니까?

<표 17> 추상미술 감상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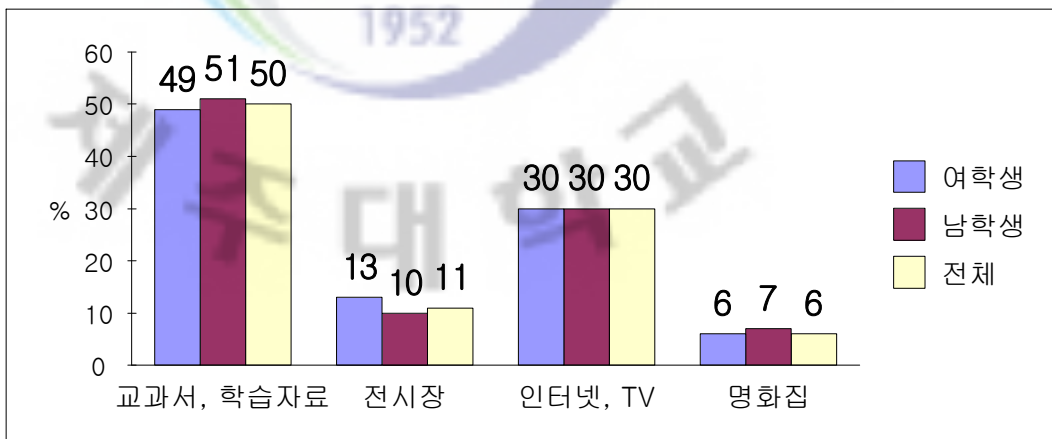
응답유형	여학생		남학생		전체	
	196명	100%	199명	100%	395명	100%
미술교과서 및 학습자료	95	48.5%	102	51.3%	197	49.9%
전시장	26	13.3%	19	9.5%	45	11.4%
인터넷 및 TV	59	30.1%	60	30.2%	119	30.1%
명화집	11	5.6%	13	6.5%	24	6.1%
- (무응답)	5	2.5%	5	2.5%	10	2.5%

이 문항은 학생들이 추상미술작품을 처음 접한 곳을 알아보고자 한 질문이다. 추상미술을 ‘명화집’ 과 ‘전시장’ 에서 접한 학생들은 6%, 11%로 저조한 비율

을 보였고 반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교과서, 학습자료’로 50%에 달하는 비율을 보였다.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인터넷, TV’로 30%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추상미술을 처음 접하는 곳의 대부분은 교과서와 학습자료였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에 제시된 추상미술 영역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교과서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사가 별도로 학습 자료를 통해 내용을 보충하여 학생들이 추상미술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다른 부분들은 남·여학생이 비슷한 수치를 보였으나 추상미술을 처음 접한 장소가 ‘전시장’이라고 응답한 학생들 중에서는 남학생 보다 여학생이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림 16> 추상미술 감상 장소

#### 4) 추상미술의 이해와 수업·관심영역에 대한 문항

추상미술의 이해와 수업·관심영역에 대한 문항은 9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항은 추상미술의 이해도, 추상미술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 추상미술 이론 수업 정도, 추상미술 작품제작 정도, 교과서 사용정도, 추상미술 수업 시 배운 내용, 추상미술에서 이해가 어려운 부분, 추상미술에 대한 학습욕구, 추상미술에서 배우고 싶은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학생들의 추상미술에 대한 이해도와 이해하기 어려운 요인을 살펴보고, 추상미술 수업에서 다뤄진 세부내용과 추상미술에 대한 관심 등 추상미술 수업을 중심으로 질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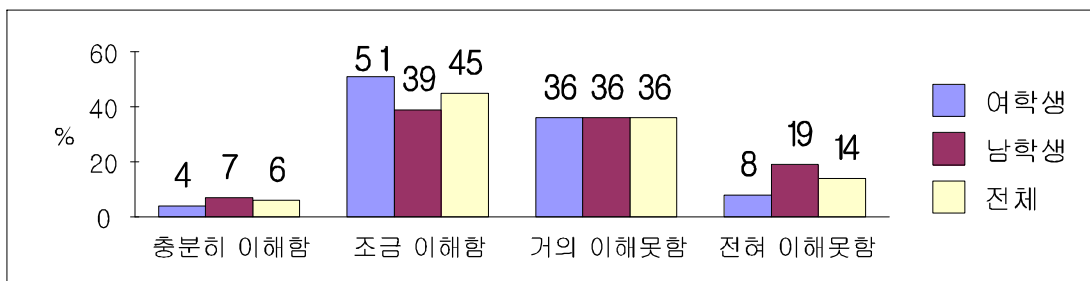
○ 설문 11. 현재 본인의 추상미술에 대한 이해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표 18> 추상미술의 이해도

응답유형	여학생		남학생		전체	
	196명	100%	199명	100%	395명	100%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8	4.1%	14	7.0%	22	5.6%
조금 이해하고 있다	99	50.5%	77	38.7%	176	44.6%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71	36.2%	71	35.7%	142	35.9%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16	8.2%	37	18.6%	53	13.5%
- (무응답)	2	1.0%	0	0.0%	2	0.4%

이 문항은 추상미술의 이해도에 대하여 묻는 질문이다.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라고 답한 학생은 전체의 5%로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났고 반면 ‘조금 이해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가장 높은 비율로 45%에 달하였다. 두 번째로 높은 비율로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가 36%,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가 세 번째 순위로 14%가 나와 추상미술을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50%를 차지함을 볼 수 있었고 추상미술을 이해하고 있는 학생들 역시 비슷한 비율을 나타냈다.

50%만이 추상미술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추상미술에 대한 내용 전달에 있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추상미술을 이해하지 못하는 비율이 10%가량 많은 55%에 달하였다.



<그림 17> 추상미술의 이해도

- 설문 12. (※ 11번 문항에서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에 표시한 사람만 답하시오.) 추상미술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표 19> 추상미술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

응답유형	여학생		남학생		전체	
	196명	100%	199명	100%	395명	100%
관심은 있으나 배울 기회가 없어서	23	11.7%	12	6.0%	35	8.9%
관심도 있고 배웠으나 어려워서	24	12.2%	22	11.1%	46	11.6%
관심도 없고 배울 기회도 없어서	56	28.6%	84	42.2%	140	35.4%
- (무응답)	93	47.5%	81	40.7%	174	44.1%

이 문항은 추상미술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를 알아보려고 한 질문이다.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에 표시한 사람만 답하도록 하여 44%의 학생들이 무응답 하고 56%의 학생들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11번에서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에 응답한 비율은 50%로 나타나 6% 학생은 이해도와 관계없이 응답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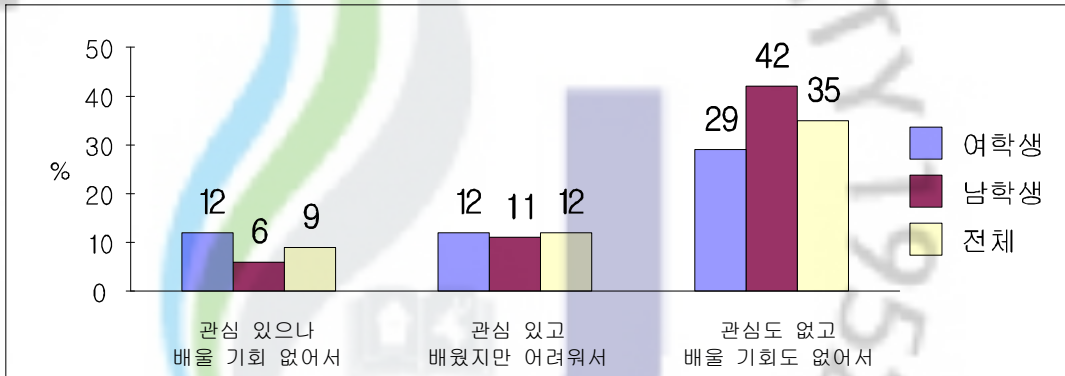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관심도 없고 배울 기회도 없어서’ 라는 이유로 35%에 달하였다. 두 번째 순위를 차지한 것은 ‘관심도 있고 배웠으나 어려워서’ 라고 응답한 것으로 12%, ‘관심도 없고 배울 기회도 없어서’ 라고 답한 학생은 9%로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배울 기회와 상관없이 추상미술에 관심 있는 학생은 전체 21%를 차지했고, 관심이 없는 학생은 35%를 차지하여 많은 학생들이 추상미술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추상미술에 관심 있는 남학생은 17%, 여학생은 24%로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추상미술에 대한 관심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학생에 비하여 추상화를 선호하지 않는 남학생들은 ‘관심이 없고 배울 기회도 없어서’ 라는 응답에 여학생보다 13%가 높은 42%의 비율을 보였다.

관심이 있고 배웠지만 어렵다는 학생이 12%에 불과하고 관심도 없고 배울 기

회도 없다는 학생이 35%에 달하는 것을 보았을 때 추상미술을 배울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 18> 추상미술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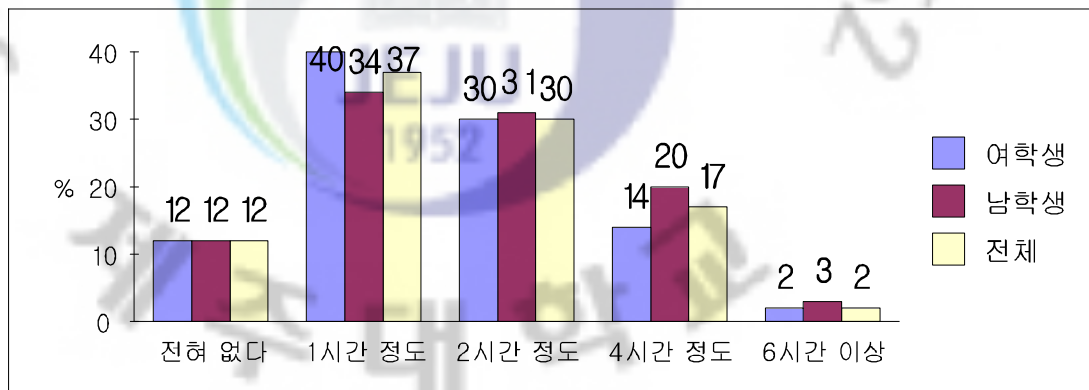
- 설문 13. 중학교 1, 2학년 과정에서 추상미술작품의 감상이나 표현방법 등에 관한 이론 수업을 어느 정도 받았습니까?

<표 20> 추상미술 이론수업 정도

응답유형	여학생		남학생		전체	
	196명	100%	199명	100%	395명	100%
전혀 없다	25	12.8%	24	12.1%	49	12.4%
1시간 정도	78	39.8%	68	34.2%	146	37.0%
2시간 정도	58	29.6%	61	30.7%	119	30.1%
4시간 정도	28	14.4%	39	19.6%	67	17.0%
6시간 이상	4	2.0%	5	2.5%	9	2.3%
- (무응답)	3	1.4%	2	0.9%	5	1.2%

이 문항은 실질적으로 중학교 1, 2학년 과정에서 받은 추상미술 이론 수업 정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질문이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1시간 정도’로 37%를 차지했고, 두 번째 높은 비율은 ‘2시간 정도’로 30%를 차지했다. 그 다음 세 번째 순위의 응답이 ‘4시간 정도’로 17%, 네 번째 순위가 ‘전혀 없다’로 12%, ‘6시간 이상’이 가장 낮은 비율로 2%로 나타났다.

이로써 추상미술 이론수업 시간은 대부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교과서 분석을 통하여 추상미술 단원의 할당시간 계산 결과로 연간 주어지는 시간이 평균 2시간으로 나타났지만 이 문항이 중학교 1, 2학년 과정을 범위로 하기 때문에 2년의 기간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실질적으로 4시간 정도가 추상부분에 할당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이론부분과 작품제작부분으로 크게 나누었을 때 이론부분은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로 예상해볼 수 있는데 설문 결과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림 19> 추상미술 이론 수업 정도

○ 설문 14. 중학교 1, 2학년 과정에서 추상미술 작품제작을 어느 정도 해 보았습니까?

<표 21> 추상미술 작품제작 정도

응답유형	여학생		남학생		전체	
	196명	100%	199명	100%	395명	100%
전혀 없다	49	25.0%	45	22.6%	94	23.8%
1시간 정도	60	30.6%	51	25.6%	111	28.1%
2시간 정도	59	30.1%	72	36.2%	131	33.2%
4시간 정도	22	11.3%	19	9.5%	41	10.4%
6시간 이상	3	1.5%	10	5.0%	13	3.3%
- (무응답)	3	1.5%	2	1.1%	5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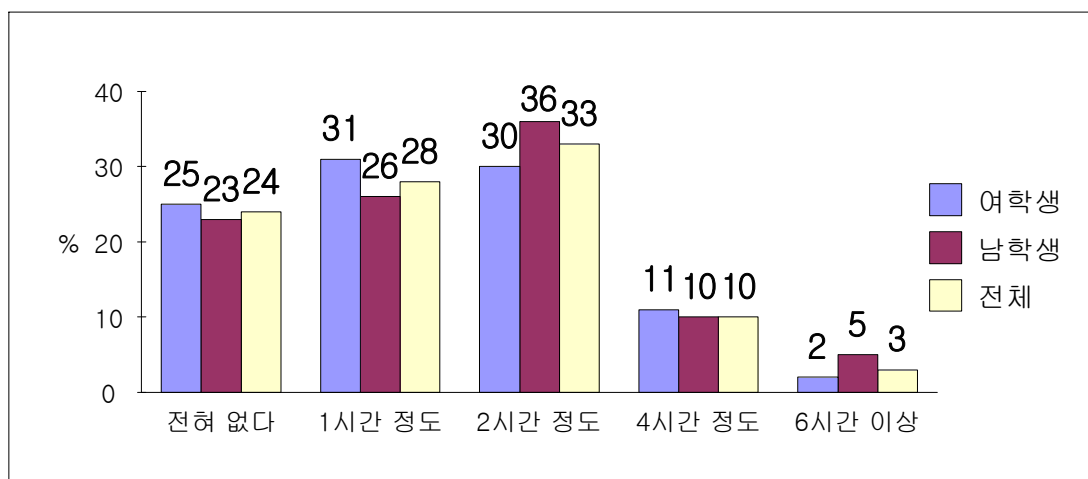


이 문항은 학생들이 중학교 1, 2학년 과정에서 추상미술 작품제작을 어느 정도 해보았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질문이다. 결과로써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33%로 ‘2시간 정도’ 였으며,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응답은 ‘1시간 정도’ 로 28%를 차지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응답이 ‘전혀 없다’ 로 24%, 네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응답이 ‘4시간 정도’ 로 10%, 마지막으로 3%의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한 응답은 ‘6시간 이상’ 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작품 제작시간 역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로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추상미술 작품 제작을 한 적이 ‘전혀 없다’ 고 대답한 학생이 24%를 차지하여 일부 학교에서는 추상미술 교육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교과서 분석을 통하여 나온 결과에 의하면 2년간 추상부분에 할당된 시간은 대략 4시간 정도 였다. 여기서 이론 수업시간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로 할당해보았을 때 작품제작 시간은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로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설문 결과에 의하면 작품 제작시간 역시 이론수업 시간과 동일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작품제작의 과정을 생각했을 때 2년의 기간 동안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의 시간은 부족하게 느껴진다. 더군다나 추상미술을 통해 창의성 개발이라든지 감성교육을 하여 어떠한 효과를 얻어내기에는 무리가 있는 시간이라고 여겨진다.



<그림 20> 추상미술 작품 제작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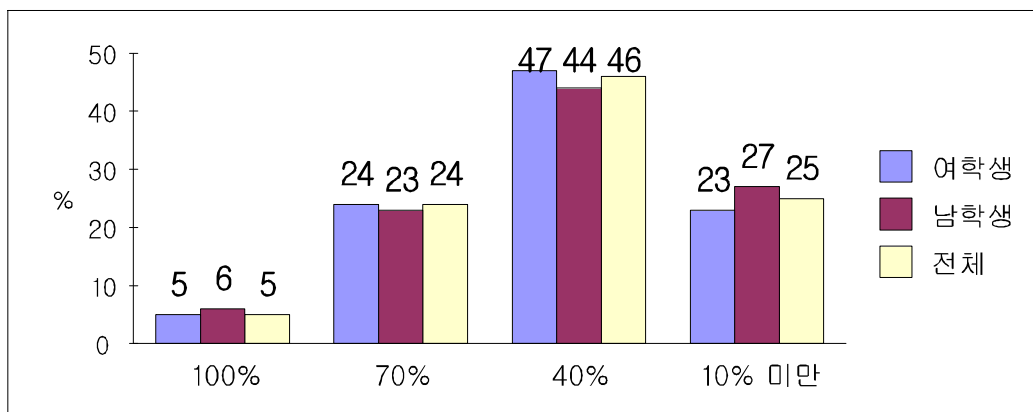
○ 설문 15. 미술수업을 할 때 교과서는 어느 정도 사용합니까?

<표 22> 교과서 사용 정도

응답유형	여학생		남학생		전체	
	196명	100%	199명	100%	395명	100%
100%	9	4.6%	11	5.5%	20	5.1%
70%	47	24.0%	46	23.1%	93	23.5%
40%	93	47.4%	87	43.7%	180	45.6%
10% 미만	45	23.1%	54	27.1%	99	25.1%
- (무응답)	2	0.9%	1	0.6%	3	0.7%

이 문항은 미술수업 시간에 교과서의 사용 정도를 알아보고자 하는 질문이다. 결과는 미술 교과서를 ‘40%’ 사용한다는 응답이 4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었고 ‘70%’ 사용한다는 응답이 24%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여주었으며, ‘10% 미만’ 사용한다는 응답이 25%로 세 번째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미술 교과 사용을 ‘100%’ 한다는 응답은 5%에 불과했다.

교과서를 전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5%’ 로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과서를 ‘40%’ 사용한다는 응답을 통하여 보통 교과서의 반 이하 정도를 활용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추상미술 단원의 경우 교과서의 구성만 따라도 지금의 추상미술 작품제작 시간보다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



<그림 21> 교과서 사용 정도

○ 설문 16. 추상미술 수업 시간에 어떤 부분을 배웠습니까?

<표 23> 추상미술 수업 시 배운 내용

응답유형	여학생		남학생		전체	
	196명	100%	199명	100%	395명	100%
감상방법	13	6.6%	27	13.6%	40	10.1%
표현기법	46	23.5%	54	27.1%	100	25.3%
작가와 작품 이해	23	11.7%	13	6.5%	36	9.1%
추상미술의 특징	14	7.2%	13	6.5%	27	6.9%
실제 작품제작	7	3.6%	10	5.0%	17	4.3%
- (무응답)	93	47.4%	82	41.3%	175	44.3%

이 문항은 학생들이 추상미술 수업시간 가운데 배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하는 질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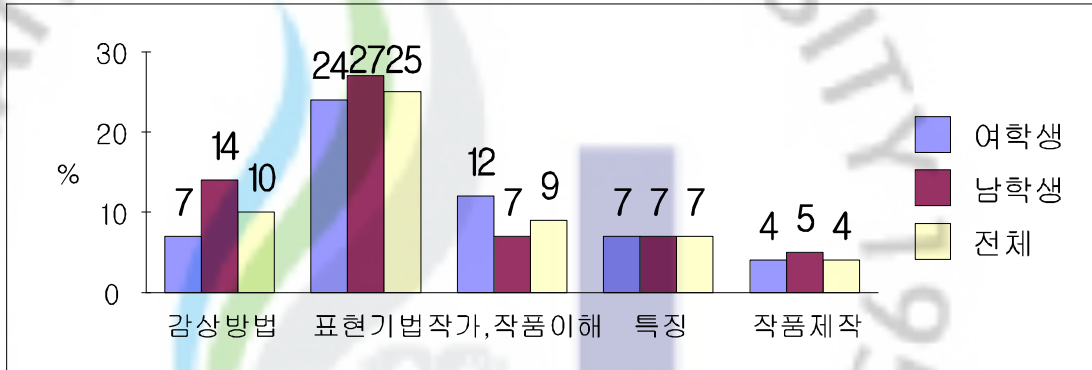
결과로써 추상미술 시간에 배운 내용으로 ‘표현기법’이 2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그 다음 ‘감상방법’이 10%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작가와 작품이해’가 9%로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추상미술의 특징’이 7%로 네 번째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실제작품제작’이 4%로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결과를 통하여 추상미술 수업에서 기법적인 면을 주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실제작품제작’은 4%로 예상했던 것보다 더 낮은 비율로 나타나 추상미술의 개념 정도만을 가볍게 다루고 있는 학교가 적지 않을 것이라 여겨졌다.

무응답자 비율이 44%인 것은 눈여겨 볼만한데 이것은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학습한 내용을 표시하는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추상미술에 대한 내용이 충분히 다뤄졌을 경우 구체적으로 학습한 내용을 표시하는 데에 부담이 적었을 텐데 무응답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아 추상미술에 대한 수업 경험이 많지 않음이 무응답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부분은 남 · 여학생이 거의 비슷했는데 추상미술 수업 시 배운 내용에서 ‘감상방법’을 학습했다고 응답한 학생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작가, 작품 이해’ 부분을 학습했다고 응답한 학생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높

은 비율로 나타났다.



<그림 22> 추상미술 수업 시 배운 내용

○ 설문 17. 추상미술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이해하기 어렵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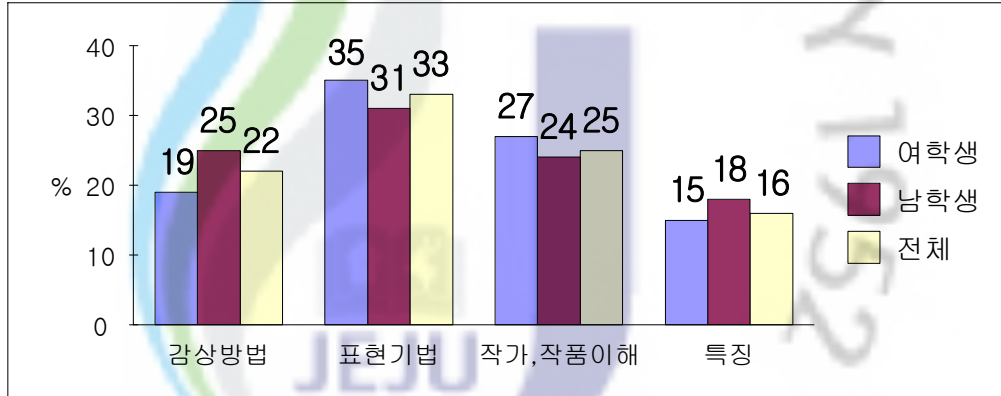
<표 24> 추상미술에서 이해가 어려운 부분

응답유형	여학생		남학생		전체	
	196명	100%	199명	100%	395명	100%
감상방법	37	18.9%	50	25.1%	87	22.0%
표현기법	68	34.7%	61	30.7%	129	32.7%
작가와 작품 이해	52	26.5%	48	24.1%	100	25.3%
추상미술의 특징	29	14.9%	35	17.6%	64	16.2%
- (무응답)	10	5.0%	5	2.5%	15	3.8%

이 문항은 추상미술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묻는 질문이다. 결과로는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에서 ‘표현기법’이 3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감상방법’이 두 번째 높은 비율로 22%, ‘작가와 작품 이해’가 세 번째 높은 비율로 25%, ‘추상미술의 특징’이 가장 낮은 비율로 16%를 차지하였다.

16번 문항 설문결과에서 표현기법이 학습내용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가장 어려운 부분을 표현기법으로 꼽고 있다. 하지만 어려운 부분이 ‘감상방법’이나 ‘작가와 작품이해’의 비율과 높게 차이 나지 않는 것을 보았을 때 어느 한 부분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파악하기 보다는 전체적으

로 추상미술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많은 시간의 할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교육과정으로 추상미술에 대해 분명하고 성실히 지도하는 것일 것이다.



<그림 23> 추상미술에서 이해가 어려운 부분

○ 설문 18. 추상미술에 대한 학습을 어느 정도 하고 싶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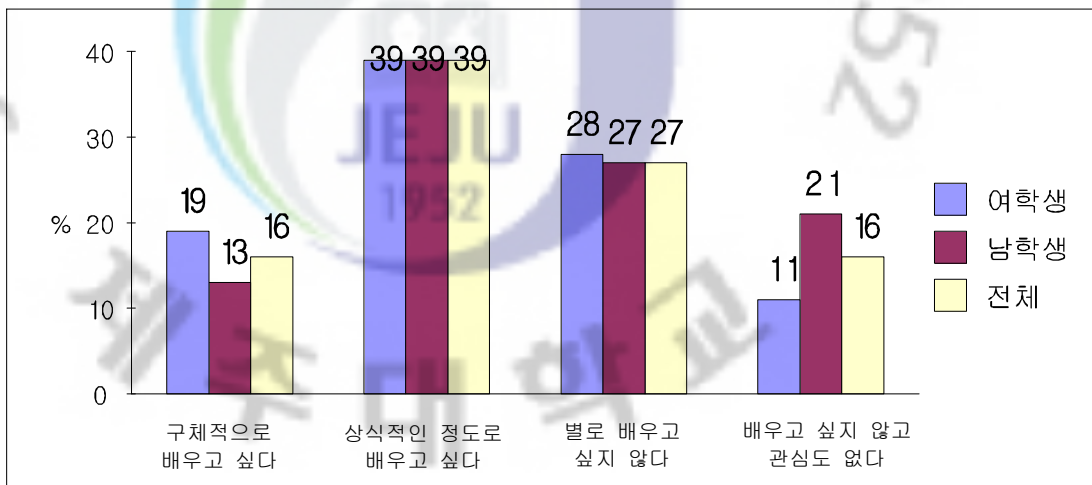
<표 25> 추상미술에 대한 학습욕구

응답유형	여학생		남학생		전체	
	196명	100%	199명	100%	395명	100%
구체적으로 배우고 싶다	37	18.9%	25	12.6%	62	15.7%
상식적인 정도까지만 배우고 싶다	77	39.3%	78	39.2%	155	39.2%
별로 배우고 싶지 않다	54	27.6%	53	26.6%	107	27.1%
배우고 싶지 않고 관심도 없다	22	11.3%	42	21.1%	64	16.2%
- (무응답)	6	2.9%	1	0.4%	7	1.8%

이 문항은 추상미술에 대한 학생들의 학습욕구를 알아본 것이다. 결과로써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상식적인 정도까지만 배우고 싶다’ 는 것으로 39%에 달했고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응답으로 ‘별로 배우고 싶지 않다’ 가 27%,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응답으로는 ‘구체적으로 배우고 싶다’ 와

‘배우고 싶지 않고 관심도 없다’ 로 동일하게 16%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배우고 싶다’ 와 ‘상식적인 정도까지만 배우고 싶다’ 고 답해 추상미술에 대한 학습욕구가 있는 학생들은 55%로 반을 넘는 수치로 나타났으며 ‘별로 배우고 싶지 않다’ , ‘배우고 싶지 않고 관심도 없다’ 고 답해 추상미술에 대한 학습욕구가 없는 학생들은 43%로 나타나 예상 외로 학생들에게 추상미술에 대한 학습욕구가 있으며 추상미술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추상미술에 대한 학습욕구가 6%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4> 추상미술에 대한 학습욕구

○ 설문 19. 추상미술의 어떤 부분을 자세히 배우고 싶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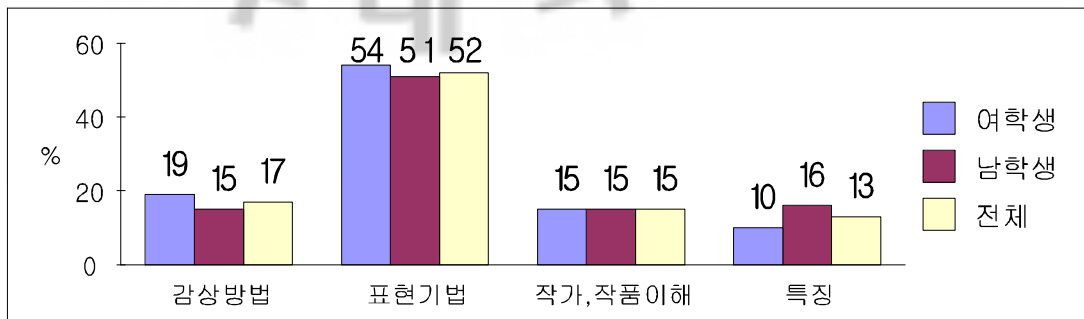
<표 26> 추상미술에서 배우고 싶은 영역

응답유형	여학생		남학생		전체	
	196명	100%	199명	100%	395명	100%
감상방법	37	18.9%	30	15.1%	67	17.0%
표현기법	106	54.1%	101	50.8%	207	52.4%
작가와 작품	30	15.3%	29	14.6%	59	14.9%
추상미술의 특징	19	9.7%	31	15.6%	50	12.7%
- (무응답)	4	2.0%	8	3.9%	12	3.0%

이 문항은 추상미술에서 배우고 싶은 영역을 묻는 질문이다. 결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표현기법’으로 52%의 비율로 나타났으며 두 번째로 높은 비율로 ‘감상방법’이 17%, 세 번째로 ‘작가와 작품 이해’가 15%, 마지막으로 ‘추상미술의 특징’이 13%로 ‘작가와 작품 이해’와 미미한 차이를 보이며 가장 낮은 비율을 보여줬다.

앞에서 살펴본 설문 결과를 통해 추상미술수업 시간에서 표현기법에 할애된 시간은 가장 많으면서도 학생들에게는 표현기법이 가장 이해가 어려운 부분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기법을 자세히 배우고 싶다고 한 것은 표현기법이 어렵기 때문에 자세히 알고 싶은 것이거나 표현기법 자체를 어렵지만 재밌게 여기는 것이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교사는 추상미술의 역사적 흐름과 작품제작의 원리, 작가의 내적감정 표현과정을 지도함으로써 추상미술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도운 후 표현기법에 대해 지도하여야 할 것이며 할애된 시간에 맞게 분명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가르치되, 보다 쉬운 방법을 연구하여 접근해야 할 것이다.



<그림 25> 추상미술에서 배우고 싶은 영역

#### 5) 추상미술과 감정표현에 대한 문항

추상미술과 감정표현에 대한 문항은 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항은 추상미술에서 감정표현 여부, 감정표현에 대한 느낌, 감정표현이 어려웠던 이유, 사실과 감정표현 중 중시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여 감정표현이 용이한 추상미술에서 학생들이 얼마만큼의 감정표현을 하고 있으며 감정표현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와 생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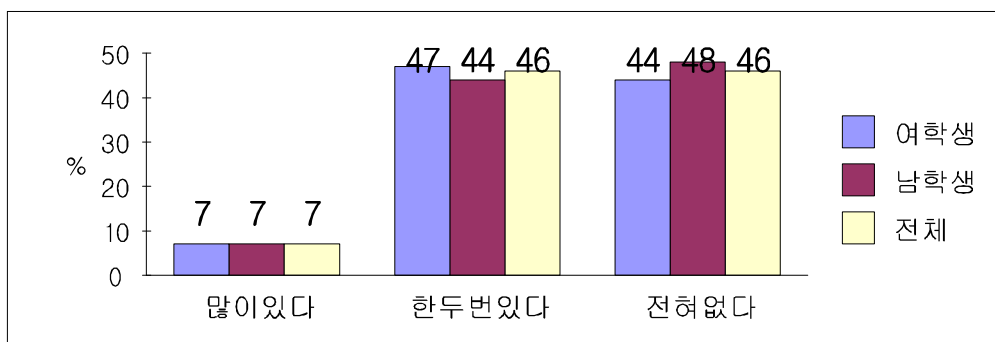
○ 설문 20. 추상표현 미술을 통하여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 본 적이 있습니까?

<표 27> 추상미술에서 감정표현 여부

응답유형	여학생		남학생		전체	
	196명	100%	199명	100%	395명	100%
많이 있다	13	6.6%	14	7.0%	27	6.8%
한두 번 있다	93	47.4%	87	43.7%	180	45.6%
전혀 없다	86	43.9%	96	48.2%	182	46.1%
- (무응답)	4	2.1%	2	1.1%	6	1.5%

이 문항은 추상미술에서 학생들의 감정표현 경험을 묻는 질문이다. 감정표현이 ‘전혀 없다’ 고 대답한 학생과 ‘한두 번 있다’ 고 대답한 학생의 비율이 46%로 동일하게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감정표현을 못해본 까닭이 추상 미술에 대한 학습경험이 없기 때문이거나 추상미술에 대한 학습은 있었지만 깊이 있는 수업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예상해 볼 수 있었다. 추상미술을 통한 감정표현 경험이 ‘많이 있다’ 고 응답한 학생들은 7%에 불과했다.

추상미술을 통한 감정표현을 한두 번 해보았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3%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전혀 감정표현을 해 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4%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추상미술을 통한 감정표현의 경험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림 26> 추상미술에서 감정표현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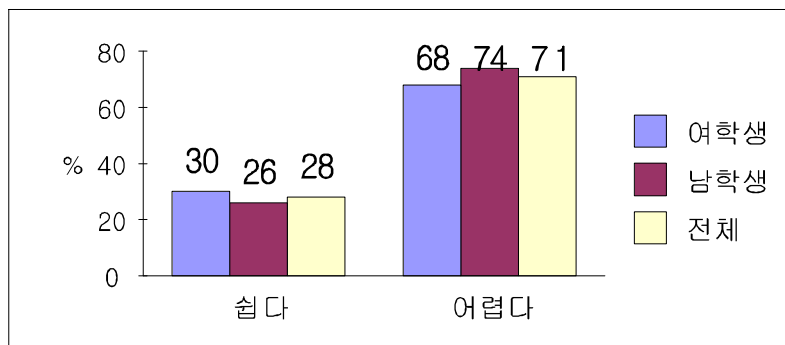
○ 설문 21. 추상표현 미술을 통하여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표 28> 감정표현에 대한 느낌

응답유형	여학생		남학생		전체	
	196명	100%	199명	100%	395명	100%
쉽다	58	29.6%	51	25.6%	109	27.6%
어렵다	133	67.9%	147	73.9%	280	70.9%
- (무응답)	5	2.5%	1	0.5%	6	1.5%

이 문항은 추상미술을 통하여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 묻는 질문이다. 결과로는 ‘어렵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71%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쉽다’고 대답한 학생들은 28%를 차지했다. 또한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감정표현에 대해 6% 가량 어렵다고 느꼈다.

추상미술 수업에서 표면적인 부분에만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추상미술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내적감정의 표현에 대하여 지도하되 역사의 흐름과 추상주의 화가들의 작품제작 과정을 통해 탐구하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남학생이 감정표현에 대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기억하여 남학생을 지도하는데 보다 쉽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그림 27> 감정표현에 대한 느낌

○ 설문 22. (※ 21번 문항에서 ‘어렵다’에 표시한 사람만 대답하시오.)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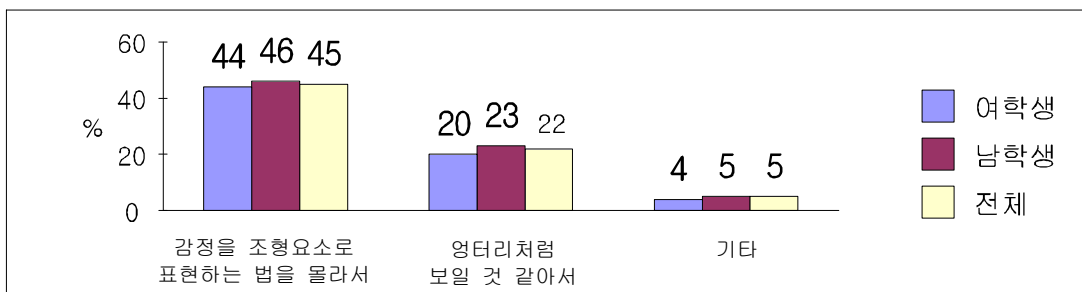
<표 29> 감정표현이 어려운 이유

응답유형	여학생		남학생		전체	
	196명	100%	199명	100%	395명	100%
감정을 조형요소로 표현하는 법을 몰라서	87	44.4%	91	45.7%	178	45.1%
감정을 조형요소로 나타내는 것이 엉터리처럼 보일 것 같아서	39	19.9%	46	23.1%	85	21.5%
기타	8	4.1%	10	5.0%	18	4.6%
- (무응답)	62	31.6%	52	26.2%	114	28.8%

이 문항은 추상미술을 통하여 감정표현을 하는 것에 대해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에 대해 묻는 질문이다. ‘어렵다’에 표시한 사람만 응답하도록 하여 무응답자가 29%, 응답자가 71%로 나타났다. 21번의 문항에서 ‘어렵다’고 응답한 자 역시 71%로 모두가 질문에 응답한 것으로 보인다.

감정 표현이 어려운 이유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감정을 조형요소로 표현하는 법을 몰라서’로 45%의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두 번째로 ‘감정을 조형요소로 나타내는 것이 엉터리처럼 보일 것 같아서’가 22%, ‘기타’가 5%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앞서 살펴본 결과들에 의하면 추상미술 시간 중에서도 표현기법을 학습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지만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고, 동시에 가장 배우고 싶은 부분이라고 응답한 것을 볼 수 있었다. 감정을 조형요소로 표현하는 법을 모른다고 응답한 것은 내적 감정 표현의 과정을 학습하기보다 표면적인 기법위주로 학습되어진 것으로 볼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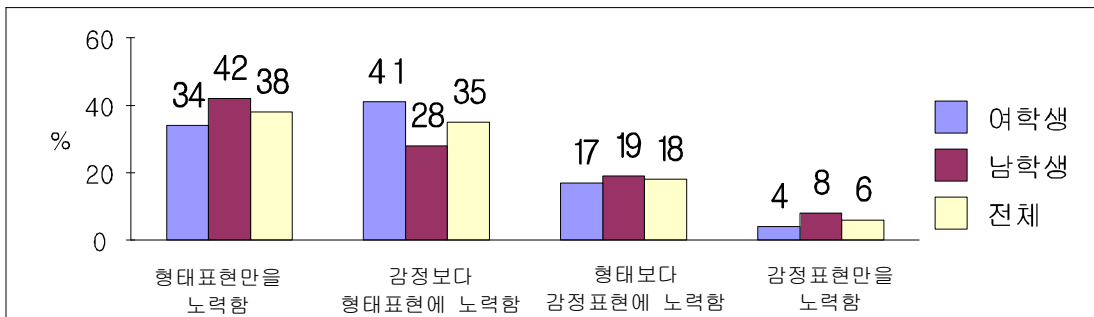
<그림 28> 감정표현이 어려운 이유

- 설문 23. 평소 그림을 그릴 때 사실과 감정표현 중 중시하는 부분은 어느 쪽입니까?

<표 30> 사실과 감정표현 중 중시하는 부분

응답유형	여학생		남학생		전체	
	196명	100%	199명	100%	395명	100%
별 감정 없이 보이는 대로 그리려고 노력 한다.	67	34.2%	84	42.2%	151	38.2%
보이는 대로 그리지만 감정을 표현하려고 노력 한다.	81	41.3%	56	28.1%	137	34.7%
형태는 조금 어긋나도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더 노력 한다.	34	17.3%	38	19.1%	72	18.2%
형태는 상관없이 감정만을 표현하려고 노력 한다.	7	3.6%	16	8.0%	23	5.8%
- (무응답)	7	3.6%	5	2.6%	12	3.1%

이 문항은 학생들이 사실과 감정 표현 중 중시하는 부분을 묻는 질문이다. ‘별 감정 없이 보이는 대로 그리려고 노력 한다’가 38%의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보이는 대로 그리지만 감정을 표현하려고 노력 한다’가 두 번째 순위로 35%, 그에 반해 ‘형태는 조금 어긋나도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더 노력 한다’는 18%, ‘형태는 상관없이 감정만을 표현하려고 노력 한다’는 6%로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는 감정표현보다 사실표현에 익숙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며 이제껏 이루어진 미술교육의 방향을 엿볼 수 있는 결과라고 본다.



<그림 29> 사실과 감정표현 중 중시하는 부분

6)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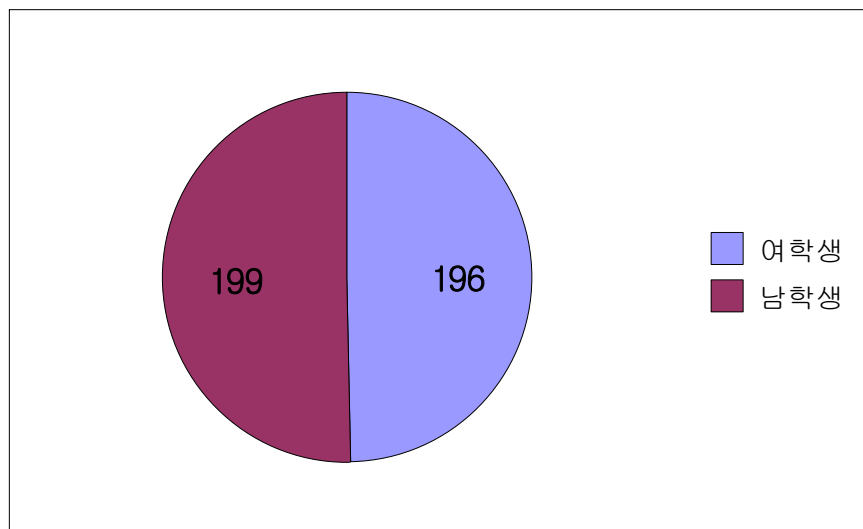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문항은 2문항으로 학생의 성별과 학교 소재 지역에 관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학생의 성별 비율과 학교 소재 지역의 비율을 살펴보았다.

○ 설문 24. 학생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표 31> 학생의 성별

응답유형	여학생		남학생		전체	
	196명	100%	199명	100%	395명	100%
여자	196	100.0%	0	100.0%	196	49.6%
남자	0	0.0%	199	0.0%	199	50.4%

이 문항은 학생의 성별을 묻는 질문이다. 여학생은 전체 395명 중에 196명으로 49.6%로 나타났고 남학생은 전체 395명 중에 199명으로 여학생보다 0.8% 높은 수치인 50.4%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수점 한자리 이하를 반올림 하였을 때 각각 50%로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율이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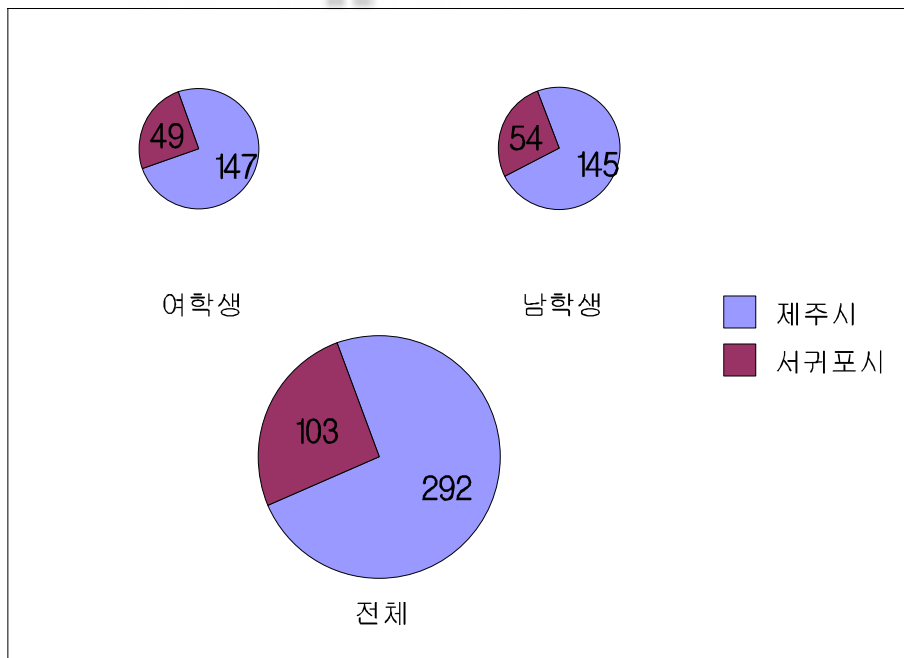
<그림 30> 학생의 성별

○ 설문 26. 학생의 학교는 어느 지역에 위치합니까?

<표 32> 학교 소재 지역

응답유형	여학생		남학생		전체	
	196명	100%	199명	100%	395명	100%
제주시	147	75.0%	145	72.9%	292	73.9%
서귀포시	49	25.0%	54	27.1%	103	26.1%

이 문항은 설문조사에 응한 학생의 학교 소재 지역을 알아보고자 한 문항이다. 제주시에는 여학생이 147명, 서귀포시에는 여학생이 49명으로 75%, 25%의 비율로 나타났고 남학생은 제주시에 145명, 서귀포에 54명으로 73%, 27%의 비율로 나타났다. 전체비율로 보았을 때 제주시에 소재하는 학교에서 응답한 학생수가 292명으로 74%를 차지했고 서귀포시에 소재하는 학교에서 응답한 학생수가 103명으로 26%를 차지하여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3:1의 비율로 나타남을 볼 수 있었다.



<그림 31> 학교 소재 지역

### 3. 추상미술교육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중학교 교과서에서 구상미술과 비교한 추상미술의 비중과 내용 분석, 제주도내 추상미술교육 실태에 관한 설문 결과 분석을 통해 살펴본 현재 추상미술교육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 1) 문제점

문제점은 교과서의 구성, 추상미술 교육에 대한 외적 환경, 추상미술 교육 실제 수업 부분의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교과서의 구성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서에서 단원별 배당시간과 소단원 수를 비교했을 때 구상미술과 추상미술의 비율은 3:1로 구상미술에 편중되어 있었다. 이 같은 결과로 인해 미술수업은 자연스럽게 구상미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며, 결과적으로 학생들은 사실적이고 기술적인 표현방법에는 능숙하나 내면 표현이나 창의적 표현에는 미숙하게 돼버릴 수 있다.

둘째, 교과서 내용구성에서 구상미술의 소단원은 구상미술에 대한 하위 주제로 이루어져 있고 학습내용에서 다양한 표현방법들이 제시되어 있었는데 추상미술의 소단원은 추상미술에 대한 하위 주제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학습내용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도 될 법한 표현방법 자체가 주제화 되어 있었다. 그러다보니 구상미술에 비하여 추상미술은 역사적 흐름이나 원리 이해보다 표면적인 기술에 대한 내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추상미술 교육에 대한 외적 환경에 대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밖에서 추상미술을 접할 기회가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37%에 불과해 대부분의 학생들이 추상미술을 접할 기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상 기회가 없음으로 인해 학생들은 추상미술에 대한 관심 자체를 갖기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제주도의 특성상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추상미술의 교육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또한 추상미술을 처음 접한 곳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교과서와 학

습 자료였는데 이것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추상미술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에서의 추상미술 교육이 소홀히 여겨진다면 학생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추상미술의 의미에 대해 오해하거나 무관심으로 추상미술을 대하게 될 것이다.

둘째, 추상미술을 배울 기회가 없다고 한 학생은 35%에 달하였고, 교사들의 교과서 활용 정도는 40%로 나타나 교사의 재량에 따라 추상미술이 다뤄지지 않을 경우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학교 밖에서 추상미술의 교육에 대한 기회가 거의 없음을 염두에 둘 때 이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추상미술 교육의 실제 수업 측면에서 살펴본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추상미술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학생이 50%인 것을 통해 추상미술에 대한 수업이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추상미술 수업 방법과 과정, 내용에 있어서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둘째, 중학교 1·2학년 과정 2년의 기간 동안 추상미술의 작품제작 시간은 평균 2시간으로 교과서에 제시된 분량의 2분의 1정도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더군다나 추상미술의 구체적인 학습내용을 묻는 질문에서 ‘실제 작품 제작’을 해보았다는 학생의 비율이 4%로 나타나 추상미술 개념정도의 이론만을 가볍게 다루고 있는 학교가 적지 않을 것이라 예상되었다.

셋째, 추상미술 수업 시 학습한 내용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표현기법으로 조사되었는데 학생들에게 있어 이해가 가장 어려운 부분 역시 표현기법이었으며 가장 배우고 싶은 영역도 표현기법으로 조사되어 표현기법에 대해 이루어진 수업이 표면적이고 난해하게 지도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수업 방법의 개선이 시급함을 보여주는 결과였다.

넷째,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추상미술을 통해 감정표현을 전혀 해본 적이 없는 학생이 46%로 조사되었고 감정표현이 어려운 이유에서는 45%의 학생들이 표현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를 통해 추상미술 수업에서 내적감정표현에 대한 과정이 소홀히 여겨지고 있음을 판단할 수 있었다. 추상미술에서 감정표현은 조형요소의 표현과 더불어 가장 핵심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은 추상미술의 학습목표 설정이나 수업의 방향이 추상미술

의 본질적 성격에서 벗어났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 외로 추상미술 교육에 있어 직접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몇 가지의 눈여겨 볼만한 결과가 있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학생에 비교하였을 때 남학생은 미술시간을 선호하는 비율이 낮았고 추상화를 선호하는 비율 역시 동일하게 낮았으며, 추상미술에 대한 이해도도 여학생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추상화를 통한 감정표현에 있어서도 여학생보다 더 어려움을 느낀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추상미술 수업에서 남학생을 고려한 과정안이 구상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둘째, 미술에서 좋아하는 영역을 묻는 질문에 학생의 60%는 디자인이라고 응답하였다. 나머지 회화, 판화, 조소를 선호하는 학생들은 20% 미만으로 나타나 선호영역이 디자인으로 편중됨을 볼 수 있었는데 이것은 타 영역에 있어서 비교적 소극적인 태도로 수업에 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 2) 개선방안

교과서의 구성, 추상미술 교육에 대한 외적 환경, 추상미술 교육 실제 수업 부분의 개선방안을 다음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교과서의 구성에 대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서에서 추상미술의 단원과 그에 할당된 시간을 늘려서 수업의 균형을 맞추어 내적감정 표현과 창의적 표현에 자신감 있는 학생들로 지도하여야 한다. 학생들이 미술시간을 선호하지 않는 가장 첫 번째 이유를 미술에 소질이 없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는데 소질 있는 학생들에게만 즐거운 미술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미술 수업이 상당부분이 구상미술 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증거라고도 볼 수 있다. 때문에 추상미술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기존의 3:1의 비율보다 더 비슷한 수준의 비율로 맞추는 방안이 요구된다.

둘째, 교과서 안에 추상미술 학습내용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단원을 세분화시켜 표현방법들을 주제화시키는 것이 아닌 추상미술 자체에 대한 하위주제 항목을 만들고 그 다음 학습내용에 표현방법을 첨가시키되, 추상미술의 역사에서 파생된



다양한 갈래의 흐름과 작품제작의 원리 가운데 표현방법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학습내용을 심도 있게 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연 34시간·주 1시간의 실질적인 수업시간을 고려하여 활용중심의 교과서로 수정·보완하고 교사들의 교과서 활용을 극대화시켜야 한다. 또한 교과서에 제시된 추상미술의 충분한 지도가 요구된다.

추상미술 교육에 대한 외적 환경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추상미술을 접할 기회가 없음으로 인해 추상미술과 더불어 현대미술을 무관심과 오해로 대하지 않도록 학생들과 전시장을 방문하는 시간을 주기적으로 갖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수업시간에 현대미술의 전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여 추상미술과 현대미술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연관 지어 지도한다.

둘째, 대부분의 학생들이 추상미술을 접할 기회가 없고 추상미술을 가장 많이 접하는 곳이 학교임을 염두에 두어 교과서의 내용 보완과 아울러 교사는 학습 자료와 수업 과정안의 준비에 성의를 다하고 철저한 계획가운데 수업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추상미술 교육의 실제 수업에 대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추상미술의 전 부분에서 기술적인 면만을 학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맥락과 추상주의 작가의 작품제작 과정, 내적감정 표현과정 등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으로 지도하며 추상미술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선행된 후에 실질적인 표현기법에 대하여 지도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특히 작품제작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작품 안에 학생 내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과정을 유의하여 지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추상미술을 통한 감정표현을 인성교육의 도구로 확장시켜 활용하는 것도 유익할 것이라 여겨진다.

둘째, 교사가 먼저 추상미술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할 것이며 수업과정에서의 수정과 보완이 계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추상미술 수업의 학습 성취도가 낮고 수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추상미술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수업방법, 내용, 과정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교사는

스스로 자신의 추상미술에 대한 이해도를 점검해보고 더불어 수업과정에 대한 수정과 보완을 계속적으로 해 나감으로 수업의 질과 학생들의 학습 성취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추상미술 교육에서 직접적인 문제라고 볼 수는 없으나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문제점들에 대해 살펴본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미술에 대한 선호도가 낮았으며 추상미술과 감정 표현에 있어서도 여학생보다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교사는 남학생들이 추상미술 수업에 있어서 여학생들보다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하고 남학생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교수방법을 연구하여 남·여 학생이 어느 정도 동일하게 수업의 성취를 가져올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여성교사의 높은 비율로 인하여 의도하지는 않지만 여학생들에게 익숙한 교수방법과 과정으로 수업할 수 있음을 주의하여 수업해야 할 것이다. 특히 남학생에게는 추상미술과 감정표현에 있어 더욱 구체적이고 쉬운 방법으로 접근하여 이해를 돕는 방안이 요구된다.

둘째, 60% 가량의 학생들이 미술에서 선호하는 영역이 디자인으로 나타났는데 디자인의 요소와 추상미술을 접목시켜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높이는 것도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학생들의 삶과 관련지어 활용 가능한 물건 디자인 등으로 수업을 계획하고 과정안을 작성하여 지도한다면 학습에 있어서 목표 성취도도 높아질 것이라 기대된다.

## V. 결 론

2009년 개편된 교육과정으로 인해 미술교과가 기본 교과과목에서 선택과목으로 바뀌어버린 배경에 대해 생각해보면서 지금 이 시기에 필요한 것은 보다 본질적인 미술교과의 목표를 되짚어보고 그 간의 미술교과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냉정하게 찾아 수정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여겨졌다. 여러 문제들이 있겠으나 거시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연구자는 미술수업에 있어서 상당부분이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구상미술의 성격을 지닌 수업으로 편중되어 있음을 보게 되었다. 이는 개성적 창조력과 미적 감수성을 개발한다는 미술교과의 목표에 도달하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겠다고 여겨졌다.

그리하여 연구자는 구체적인 추상미술 수업의 실태를 알아보고자 제주도내에 소재하는 중학교 8곳에서 남·여 중학생 2학년 395명을 대상으로 현장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더불어 7차 교육 과정 개편에 따라 간행된 2종의 교과서를 수집하여 중학교 미술 교과서에 제시된 추상미술의 내용을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결과에 있어서 교과서 부분의 구상미술과 비교한 추상미술의 비율에서는 3:1로 예상했던 것보다는 비중의 정도가 크게 차이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교사들의 재량 하에 교과서가 40%밖에 활용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통해서 실제수업에서는 구상미술의 성격을 지닌 수업이 3:1의 비율 이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

실제로 교과서 부분보다는 직접적인 수업에 관한 응답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는데 추상미술을 배울 기회가 없다고 응답한 학생은 35%나 되어 교사들의 재량 하에 추상미술 수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학교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추상미술의 수업 경험이 있으나 추상미술에 대해 이해하는 학생은 50%였고, 실제 작품제작을 했다고 응답한 학생은 4%에 그쳐 추상미술의 수업이 형식적이고 표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었다. 더군다나 추상미술 수업 중에 표현기법에 대한 내용을 가장 비중 있게 학습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표현기법이 가장 어렵고 또 배우고 싶은 부분이라는 결과를 통해서 추상미술 수업의 과정과

방법, 내용에서 무엇보다 큰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특히 추상미술의 가장 본질적 성격인 감정표현 과정에 대해 소홀히 다루고 있음을 보게 되었는데 추상미술을 통해 감정표현을 전혀 해본 적이 없는 학생이 46%였고 감정표현이 어려운 이유를 묻는 문항에서 45%의 학생들이 표현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결과적으로 추상미술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학교가 있다는 것도 문제이나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수업의 방향에서 추상미술 교육이 표면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치고, 추상미술 교육을 통하여 보다 본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내적 감정의 표현과 창조적 표현을 할 수 있게끔 지도하는 방향으로 수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였다.

교사들의 재량 하에 교과서가 활용되고 수업이 구성 된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교사들이 직접적으로 추상미술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한 구상미술 성격을 지닌 수업으로 편중되는 상황이 개선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교과서 구성에 있어서 구상미술과 추상미술의 비중을 맞춰나간다면 교사들의 의식 변화에는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수업에 있어서는 암기위주의 단편지식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 먼저 충분한 추상미술에 대한 지식을 갖고 역사적 맥락과 추상주의 작가의 작품제작 과정에서 추상미술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도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작품제작 가운데 미적 감수성과 개성적 창조력을 개발시킬 수 있도록 감정 표현 과정에 유의하여 지도하여야 할 것이며 표현기법에 있어서도 수많은 표현기법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창조해보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남학생들이 여학생보다 미술과 추상미술에 대한 선호도가 낮고 감정표현에 있어 비교적 어려움을 겪는다는 결과를 통해 교사들에게 있어 보다 세심한 교수방법 연구가 필요함을 보게 되었다.

미적 감수성과 개성적 창조력을 개발시키는 것이 추상미술 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추상미술 교육은 일반적 다수를 위한 교육을 가능하게 한다.

미술교과가 기본 교과과목에서 선택교과로 바뀌었다는 것은 미술교과 자체가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한 교육적 의미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기능위주의 사실표현을 강조하는 구상미술 중심의 미술수업은 소위 소질이 없는 학생들에게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수 있다. 미술 교육이 이뤄지는 일반적 대상이 특출한 소수의 인재가 아니라 다양한 학생의 집단, 즉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우리 미술교육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 것인지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실제 이뤄지고 있는 추상미술 교육의 실태 조사를 통해 추상미술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추상미술 교육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 참 고 문 헌

### <단 행 본>

- 김삼량(1992), 「미술교육개론」, 미진사
- 김성숙 외 13인(2003), 「미술 교육의 동향과 전망」, 학지사
- 김재복(1977), 「미술과 수업의 평가」, 일지사
- 김정희(2003), 「미술교육과 문화」, 학지사
- 김혜성(1991), 「현대미술을 보는 눈」, 열화당
- 노버트 린튼, 윤난지 역(2000), 「20세기의 미술」, 도서출판예경
- 로웬펠드·브리테인(1993), 「인간을 위한 미술교육」, 미진사
- 루돌프 아른하임, 김재은 역(1995), 「예술심리학(상)」, 이화여대 출판부
- 멜 구딩, 정무정 역(2003), 「추상미술」, 열화당
- 안나 모진스키, 전해숙 역(1998), 「20세기 추상미술의 역사」, 시공사
- 이화식(2008), 「이화식 미술 감상」, 참교육과 미래
- 오광수(1988), 「추상미술의 이해」, 일지사
- 유재길(1994), 「추상화 감상법」, 대원사
- 윤난지(2002), 「현대미술의 풍경」, 도서출판예경
- 정병관 외 13인(1987), 「현대미술의 동향」, 미진사
- 칸딘스키, 권영필 역(1979), 「예술에 있어서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 열화당
- Brizendine Louann Md, 임옥희 역(2007), 「여자의 뇌, 여자의 발견」, 리더스북
- F. 프라시나 & C. 해리슨, 최기득 역(1991), 「현대회화의 원리」, 미진사
- Paul Eggen·Don Kauchak(2009), 「교육심리학: 교육실제를 보는 창」, 학지사

### <논 문>

- 경선복(2002), “추상화에 접근하는 다양한 표현기법 학습이 창의력 신장에 미치는 효과”,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문정(2008), “추상미술 학습지도안의 효과에 관한 연구: 중학교 3학년을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상동(2000), “초등미술 교육에서 추상 표현력 신장 방안”,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혜숙(2007), “중학교 미술교육에서의 추상회화 감상교육”,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민화(2007), “초등미술교육에서의 추상미술지도 방안”, 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영란(2006), “추상회화 표현기법의 효율적인 지도방안 연구: 중학생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미경(2007), “추상미술 수업의 효율적 지도방안: 조각보의 조형성을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선진(2005), “추상미술 교육의 개선 방안 연구 :중학교 미술교육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시원(2005), “중학교 추상미술교육 실태조사: 미술교과서와 설문지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진보경(2006), “중학교 미술 감상지도 연구: 추상미술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미진(2006), “중학교 미술교과서에 나타난 추상미술 표현기법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정은(2006), “추상미술의 조형요소를 활용한 아동의 창의력을 신장시키는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미술학회

<기 타 문 헌>

- 한국브리태니커회사(1997), 「브리태니커 세계 대백과사전 (제20권)」
- 김용주 외 3인(2010), 「중학교 미술」, (주)지학사
- 김용주 외 3인(2010), 「중학교 미술 교사용 지도서」, (주)지학사
- 교육과학기술부(2008),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Ⅳ 체육, 음악, 미술」, 대한교과서
- 노영자 외 1인(2009), 「중학교 미술」, (주)교학사
- 노영자 외 1인(2009), 「중학교 미술 교사용 지도서」, (주)교학사
- 노영자 외 2인(2009), 「중학교 미술 해설과 평가」, (주)교학사

<ABSTRACT>

An Analysis of the Present Art Curriculum of Middle Schools in Jeju  
- Focusing on Abstract Art -

Eun-Hye Lee

Department of Art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Il-Sam Son

The subject, art was made optional in the revised curriculum in 2009. This shows that the significance and meaning of Art has been reduced compared to other subjects.

According to the revised curriculum, the main aim is to nurture creative students departing from simply making them memorize facts. Also it is said that the art curriculum aims at not just cultivating great artists but making people display their individual creativity through their artistic sensitivity and imagination, and thus breeding a desirable human.

The main trend of art curriculum is, however, not to develop students' creativity and artistic sensitivity but to emphasize skill-oriented realistic description.

By the lost balance of the education, students feel uncomfortable at their intrinsic and creative expressions, and they take passive attitudes toward those expressions.

Therefore, I have anticipated that abstract art could be an alternative to the current art curriculum's problems. Because it isn't restrained by formalities and realistic descriptions, and is expressed with pure formal principles and elements such as spots, lines, or face, which makes it easy to present the artist's inner world and helps find creativity and new formative beauty as well.

I made a research about comparing abstract art with figurative art by analyzing two textbooks that are published under the 7th revised curriculum. The study surveyed



395 2nd grade middle school students in 8 schools, and the questions consisted of art preference, appreciation of abstract art, understanding of lessons, interests in abstract art, expression of feelings and so on.

Through analyzing the textbooks and surveys, there are some problems with the abstract art curriculum. Those are unequal time allotment of abstract art, the absence of abstract art education, the lack of the attainment of the lesson goals, lessons focused primarily on identifying the superficial concepts, the low rate of production of abstract art work, lack of knowledge of presentation of the inner feeling and so on.

As for improvements, the curriculum should put emphasis on the importance of abstract art, the organization of the sub-chapters about abstract art, the application of the practical texts, the combined lessons with Modern Art. The teachers' complete understanding and preparation of abstract art classes, the changes in the contents and manner of the lessons, the guidance about how to represent inner feelings should be stressed. The methods of combining abstract art and real life to motivate students also shouldn't be neglected.

This study puts significance on emphasizing the need for abstract art education by surveying real conditions of its curriculum and touching upon improvement measures.

---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2011. 8

<부 록>

##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본 설문지는 추상미술교육에 관한 논문의 자료로 쓰기 위한 것입니다. 설문지를 통해 답해주신 내용은 본 연구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일체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모든 응답은 통계 처리되며 특정 학교나 응답자의 개인적인 내용이 별도로 평가되지는 않으니 진솔한 대답 부탁드립니다.

보다 나은 미술교육의 발전을 위해 소중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부디 한 문항도 빠뜨리지 마시고 응답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각 설문지에 해당되는 번호 뒤( )에 ✓표 해주십시오.

1. 학교에서 미술 수업은 일주일에 몇 시간씩 하고 있습니까?

- ① 1시간( )
- ② 2시간( )
- ③ 그 외:(    시간)( )

2. 1번에 표시한 미술시간 정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넉넉하다( )
- ② 적당하다( )
- ③ 부족하다( )

3. 평소 미술 수업시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좋아한다( )
- ② 좋아한다( )
- ③ 보통이다( )
- ④ 싫어한다( )
- ⑤ 매우 싫어한다( )

(※ 3번 문항에서 ‘싫어한다, 매우 싫어한다’에 표시한 사람만 답하시오.)

4.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미술에 소질이 없어서( )
- ② 준비물을 챙기는 것이 부담스럽고 귀찮아서( )
- ③ 입시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아서( )
- ④ 기타:( ) ( )

5. 미술 수업에서 가장 좋아하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 ① 회화( )
- ② 조소( )
- ③ 판화( )
- ④ 디자인( )

6. 회화는 구상화(실재하거나 상상할 수 있는 사물을 그대로 나타낸 그림)와 추상화(사물의 사실적 재현이 아닌 작가의 느낌이나 생각을 순수한 점·선·면·색채에 의한 표현으로 그린 그림)로 구분됩니다. 이 둘 중에서 더 좋아하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 ① 구상화( )
- ② 추상화( )

(※ 6번 문항에서 ‘구상화’에 표시한 사람만 답하시오.)

7. 위의 문항에서 구상화를 좋아한다고 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것에 모두 체크하시오.

- ① 보이는 대로 그리는 것이 더 잘 그려 보여서( )
- ②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
- ③ 보고 그리는 소질이 있어서( )
- ④ 기타:( ) ( )

(※ 5번 문항에서 ‘추상화’에 표시한 사람만 답하시오.)

8. 위의 문항에서 추상화를 좋아한다고 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것에 모두 체크하시오.

- ① 단순한 조형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멋있어 보여서( )
- ② 따라 그리는 것을 잘 못해서( )
- ③ 감정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
- ④ 기타:( ) ( )

9. 학교 밖에서 추상미술을 접하는 기회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 ① 자주 접한다( )
- ② 가끔 접한다( )
- ③ 거의 접하지 못한다( )
- ④ 전혀 접하지 못한다( )

10. 추상미술작품을 처음 접한 곳은 어디입니까?

- ① 미술교과서 및 학습자료( )
- ② 전시장( )
- ③ 인터넷 및 TV( )
- ④ 명화집( )

11. 현재 본인의 추상미술에 대한 이해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      ② 조금 이해하고 있다( )  
③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      ④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

(※ 11번 문항에서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에 표시한 사람만 답하시오.)

12. 추상미술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관심은 있으나 배울 기회가 없어서( )  
② 관심도 있고 배웠으나 어려워서( )  
③ 관심도 없고 배울 기회도 없어서( )

13. 중학교 1, 2학년 과정에서 추상미술작품의 감상이나 표현방법 등에 관한 이론 수업을 어느 정도 받았습니까?

- ① 전혀 없다( )      ② 1시간 정도( )  
③ 2시간 정도( )      ④ 4시간 정도( )  
⑤ 6시간 이상( )

14. 중학교 1, 2학년 과정에서 추상미술작품 제작을 어느 정도 해보았습니까?

- ① 전혀 없다( )      ② 1시간 정도( )  
③ 2시간 정도( )      ④ 4시간 정도( )  
⑤ 6시간 이상( )

15. 미술수업을 할 때 교과서는 어느 정도 사용합니까?

- ① 100%( )  
② 70%( )  
③ 40%( )  
④ 10% 미만( )

16. 추상미술 수업 시간에 어떤 부분을 배웠습니까? 해당하는 것에 모두 체크하십시오.

- ① 감상방법( )
- ② 표현기법( )
- ③ 작가와 작품 이해( )
- ④ 추상미술의 특징( )
- ⑤ 실제 작품제작( )

17. 추상미술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이해하기 어렵습니까?

- ① 감상방법( )
- ② 표현기법( )
- ③ 작가와 작품 이해( )
- ④ 추상미술의 특징( )

18. 추상미술에 대한 학습을 어느 정도 하고 싶습니까?

- ① 구체적으로 배우고 싶다( )
- ② 상식적인 정도까지만 배우고 싶다( )
- ③ 별로 배우고 싶지 않다( )
- ④ 배우고 싶지 않고 관심도 없다( )

19. 추상미술의 어떤 부분을 자세히 배우고 싶습니까?

- ① 감상방법( )                      ② 표현기법( )
- ③ 작가와 작품( )                    ④ 추상미술의 특징( )

20. 추상표현 미술을 통하여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 본 적이 있습니까?

- ① 많이 있다( )                      ② 한두 번 있다( )                      ③ 전혀 없다( )

21. 추상표현 미술을 통하여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 ① 쉽다( )                      ② 어렵다( )

(※ 21번 문항에서 ‘어렵다’에 표시한 사람만 대답하시오.)

22.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감정을 조형요소로 표현하는 법을 몰라서( )
- ② 감정을 조형요소로 나타내는 것이 엉터리처럼 보일 것 같아서( )
- ③ 기타:( ) ( )

23. 평소 그림을 그릴 때 사실과 감정표현 중 중시하는 부분은 어느 쪽입니까?

- ① 별 감정 없이 보이는 대로 그리려고 노력한다.( )
- ② 보이는 대로 그리지만 감정을 표현하려고 노력한다.( )
- ③ 형태는 조금 어긋나도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더 노력한다.( )
- ④ 형태는 상관없이 감정만을 표현하려고 노력한다.( )

24. 학생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자( )      ② 여자( )

25. 학생의 학교는 어느 지역에 위치합니까?

- ① 제주도( )      ② 서귀포시( )

❖ 대단히 감사합니다.